

충남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기록집
‘보이지 않는 숨소리’ 보이게 하기

글 심는 순서

아직, 여기. 모두의. 석면문제 : 석면피해자 인터뷰기록집을 발간하며	6
석면피해 인터뷰활동 소개 및 일러두기	8
보이지 않는 숨소리 : 석면문제 현황과 과제	14
충남 4개 지역 석면피해주민 인터뷰	
-홍성: 김상배 김광태 이남익	18
-보령: 신인철 조용학 박공순	32
-예산: 이병기 신동실 고광채	48
-청양: 안계신 권혁호	62
기록활동가 후기 : 김보리 홍순영 김형수	80
석면피해자들이 제안하는 석면정책	86
석면피해기록의 의미와 인터뷰활동 평가 : 최예용 노주형	94
추모시 : 시인 신경섭	98
함께 보면 좋을 자료 :	
충남지역 석면피해 인정 현황	102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104
마을그림책 『하얀꽃』	106



일제강점기 광천석면광산 사무실 앞에서 일본인들과 광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사진 왼쪽 중요 광물 비상증산
강조기간이라 적혀 있는 깃발이 보인다(사진제공-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주민 이권복).

“아직. 여기. 모두의. 석면문제” -석면피해자 인터뷰기록집을 펴내며-

지난 1월 석면피해를 알리고 석면피해 구제운동에 앞장섰던 정지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3월에는 석면광산 이야기를 다룬 마을그림책 『하얀꽃』에 등장했던 홍수복 님도 세상을 떠셨다. 석면실 자으시던 할머니들도 모두 돌아가셨다고 한다. 청양 비봉면 강정리에 거주하며 폐암을 앓고 계신 안계신 어르신은 ‘석면일 하던 사람은 이제 나 하나 남았다’고 쓸쓸히 말씀하셨다. 석면일을 하던 사람도, 석면피해에 대한 기억도, 우리 지역의 석면 관련 역사도 함께 사라지는 중이다.

충남은 전국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1980년대까지 석면광산업을 비롯한 석면산업이 활발했다. 광산일이 한창이던 시절 석면광산 근처 마을에서는 장년의 남성은 물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석면 안 만져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석면일을 했던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석면피해자가 많고, 친척이나 마을사람 누군가가 석면으로 아프거나 죽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지금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부는 우리나라 석면 산업의 성장과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석면질환 발생이 2045년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낡은 사진 속 석면광산을 보면 아주 옛날 일 같지만 석면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학교석면 철거만 해도 앞으로 수년이 걸리고 농가 지붕 슬레이트 역시 모두 철거하려면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어쩌면 미래가 걸린 일일지도 모르겠다.

석면피해자, 석면추방운동가 들의 노력으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지고 석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석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에서는 ‘석면얘기 꺼내면 땅값 떨어진다’, ‘이미 아픈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좋은 얘기도 아니라, 다들 듣기 싫어한다’고들 한다. 충남에 석면피해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려고 찾으려니

어려웠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석면질환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보였다.

석면문제가 불편하고 아픈 과거로만 남지 않으려면, 석면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감 때문에 논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석면을 잘 관리하고 석면피해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인터뷰기록이지만, 석면피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숙제이며, 아픈 역사를 교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기록하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남았으면 한다. 또 어디에서든 석면피해자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기록하는 활동이 이어져 사회가 석면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숨소리'를 듣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란다. 지역의 석면문제를 함께 공부해가며 석면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기록해준 기록활동가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석면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 인터뷰기록집이 석면피해구제운동에 온힘을 쏟으신 고(故) 정지열 선생님과, 석면질환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을 겪으신 모든 석면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본다.

2022년 10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석면피해기록단

석면피해자 인터뷰활동 소개와 일러두기

이 석면피해자 인터뷰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다. 실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김보리, 홍순영, 김형수 세 명의 기록활동가가 담당했다. 석면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석면피해자를 만나 인터뷰 하는 것은 처음이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습과 인터뷰 회의를 병행했다. 4월에는 이미 알고 있던 석면피해자분들께 인터뷰활동을 소개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5월부터 6월까지의 인터뷰 준비와 사전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중간중간 점검회의를 했다. 온라인소통방을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고 자료를 모았다. 보령과 예산, 청양의 맨 처음 인터뷰는 세 명의 기록활동가가 역할을 돌아가며 함께 진행하면서 인터뷰의 방향과 틀을 논의했고, 이후 김보리 활동가가 홍성과 보령, 홍순영 활동가가 예산, 김형수 활동가가 청양을 맡아 각자 석면피해주민들을 만났다.

석면피해자는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충남에서도 홍성과 보령, 예산과 청양에 90%가 넘는 피해자가 있고 폐석면광산도 몰려있어, 이 4개 지역으로 한정해 석면피해자들을 인터뷰했다. 물론 이 지역들 간에도 정보 편차가 크고 지역 특성도 달라 홍성과 보령은 인터뷰에 조사내용을 활용해 기록물 형식으로, 예산과 청양은 인물 중심의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했다.

우리가 만난 석면피해자는 모두 남성이다. 인터뷰기록에는 ‘그 시절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석면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석면광산을 드러내며 일한 건 건장한 남성이었고, 여성은 광산 밖의 일이나 석면을 가공하는 일, 간헐적으로 결합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석면일 경험이 알려진 경우가 드물었다. 여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마을이나 댁으로 찾아갔을

때 석면피해자의 아내나 친척, 마을 주민으로 그때의 기억을 나눠주셔서 조금은 이야기로 담을 수 있었다.

애초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분들을 인터뷰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3, 40대의 광부들은 대부분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수소문을 찾아가보니 석면광이 아니라 탄광에서 일했지만 광맥이 이어져있어 석면피해를 입었다든가, 여덟 살 때부터 석면 고르는 일을 했다든가, 어릴 때 어머니가 물레를 자아 석면섬유 만드느라 걸 걸 봤다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해 석면폐에 걸렸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례의 석면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석면피해자들이 석면문제나 석면질환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책제안으로 담아보았다. 석면추방운동단체들이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석면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반가웠다. 인터뷰 전 사전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이름과 사진을 신는다.

홍성군의 지원으로 김보리 기록활동가가 만든 마을그림책 『하얀 꽃』이 인터뷰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석면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좋겠고, 이 인터뷰기록집도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여정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한두 번의 만남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인터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형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내용은 전자파일로 보완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환경연합 홈페이지에 공유할 예정이다.

[석면피해 인터뷰 협조 요청 편지]

“000 선생님,

안녕하세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으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충남지역 석면피해주민 인터뷰 및 정책제안 사업>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와 기록활동가들이 홍성과 보령, 예산과 청양의 석면피해주민들로부터 석면피해가 있던 당시의 이야기, 그로 인한 어려움이나 지금의 상황,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자 지원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해주신 말씀은 잘 기록해 우리 지역 석면피해의 역사로 기록하고 교훈으로 삼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4개 지역 피해주민 10여 명을 인터뷰하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활동가들이 다듬어 10월쯤 인터뷰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인터뷰집 발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지역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니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석면피해기록단 드림.”



광천석면광산 갱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국반수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돌무더기가 무너지지 않게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었는데 이를 '굽'이라 불렀다(사진제공=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이권복).

- 폐석면광산
- 폐석면광산(추가대상)
- 석면함유 의심광산

폐석면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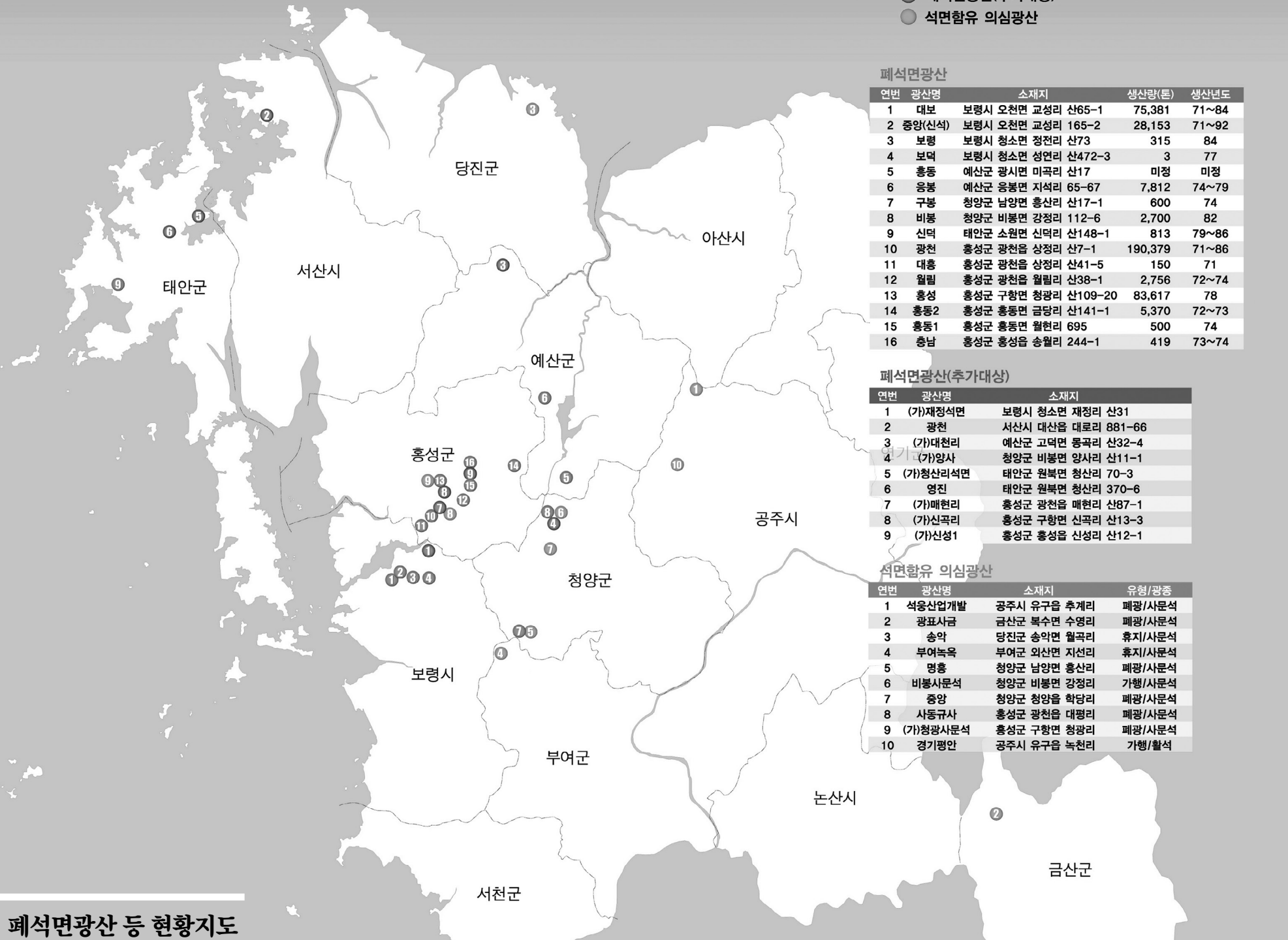
연번	광산명	소재지	생산량(톤)	생산년도
1	대보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65-1	75,381	71~84
2	중앙(신석)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165-2	28,153	71~92
3	보령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산73	315	84
4	보덕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산472-3	3	77
5	홍동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산17		미정
6	응봉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65-67	7,812	74~79
7	구봉	청양군 남양면 홍산리 산17-1	600	74
8	비봉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6	2,700	82
9	신덕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산148-1	813	79~86
10	광천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산7-1	190,379	71~86
11	대홍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산41-5	150	71
12	월림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산38-1	2,756	72~74
13	홍성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20	83,617	78
14	홍동2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산141-1	5,370	72~73
15	홍동1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695	500	74
1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244-1	419	73~74

폐석면광산(추가대상)

연번	광산명	소재지
1	(가)재정석면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산31
2	광천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881-66
3	(가)대천리	예산군 고덕면 동곡리 산32-4
4	(가)양사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산11-1
5	(가)청산리석면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70-3
6	영진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370-6
7	(가)매현리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산87-1
8	(가)신곡리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산13-3
9	(가)신성1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산12-1

석면함유 의심광산

연번	광산명	소재지	유형/광종
1	석웅산업개발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폐광/사문석
2	광표사금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폐광/사문석
3	송악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휴지/사문석
4	부여녹옥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	휴지/사문석
5	명홍	청양군 남양면 홍산리	폐광/사문석
6	비봉사문석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가행/사문석
7	중앙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폐광/사문석
8	사동규사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폐광/사문석
9	(가)청광사문석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폐광/사문석
10	경기평안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가행/활석



폐석면광산 등 현황지도

보이지 않는 목소리 -석면문제 현황과 과제

석면은 사문석 및 각섬석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의 총칭이다. 석면은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등의 특성이 있어 건축자재 및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섬유를 흡입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한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009년부터 국내의 신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부터 전국에 걸쳐 38개의 석면광산이 개발됐고 이 중 25개의 광산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확인된 석면피해자 중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데, 시군 중에서는 홍성군, 읍면 중에서는 보령시 청소면이 인구비례 석면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일제에 의해 개발된 한국의 석면광산은 한일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는 한반도 일대에 석면광산을 개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해 광산 노역을 시켰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이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석면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일본은 한반도에서 석면을 본격 채굴해 군수물자로 조달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일본 오사카 인근의 센난과 한난지역 석면공장지대에서 일했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대 베트남전쟁으로 군수산업 석면 수요가 증가했다. 1964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고 1971년 일본 최대 석면공장인 니치아스 자회사인 다츠타공업이 나라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한국의 첫

석면방직공장이 세워졌다. 이로 인해 1980~90년대에 충남에 이어 부산에서 석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08년 7월 석면피해자와 환경단체, 노동조합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Korea)가 발족되면서 석면피해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2009년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sia Ban Asbestos Network)가 홍콩에서 발족되고, 한국에서도 전국석면피해자가족협회가 그해 9월에 출범해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출신 고(故) 정지열 씨가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정지열 씨는 1945년생으로 열다섯 살에서 열여섯 살, 10년 후인 1969년 등 모두 3년 동안 형들의 뒤를 따라 광산에 다녔다고 한다. 석면폐증 2급에서 1급으로, 이어 폐암으로 악화되어 투병하던 정지열 씨는 2022년 1월 28일에 작고했다.

2008년 충남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을 중심으로 석면질환자를 찾기 위한 검진이 시작됐다. 2009년 홍성의 한 주민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고 석면폐광으로부터 1km 이내 홍성과 보령 주민 250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이 중 88명이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증, 폐암 관련 질환자로 파악됐다.

석면 관련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가 대표적이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석면폐가 발병한다. 이는 석면분진을 흡입해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의 일종이며 석면노출이 중단되어도 잠복기간이 지나면 발병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치료되지 않으며 폐암, 중피종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특이적인 암으로 예후가 매우 나쁘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의 3개 질병이 공식적인 석면질환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부터는 폐를 둘러싼 조직이 두껍게 되는 미만성흉막비후도 포함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석면피해 접수 현황은 총 9,509명이고

이중 6,4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매달 50~100명씩 인정자로 추가된다. 각 지자체별 석면질환 인정자는 충남이 가장 많은 2,225명으로 전체 6,414명 중 34.7%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859명으로 전체 비율 중 29%에 해당하며, 70대가 2,5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39.2%로 나타났다. 이미 사망한 후에 유족이 신청해 피해인정된 경우가 1,049명이고, 생존 시 피해인정 되었으나 이후 사망한 경우가 1,09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140명이다. 피해인정자 3명 중 1명은 사망한 셈으로 매우 사망률이 높다. 질환별로 사망자를 살펴보면, 악성중피종이 1,108명으로 가장 많으며 폐암이 626명, 석면폐 400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이다.

충남 시군별로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홍성군이 1,0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령시가 722명, 천안시 93명, 예산군 91명, 청양군 61명, 아산시 28명, 서산시 26명, 금산군 20명, 당진시 19명, 공주시 13명, 태안군 10명, 서천군 10명, 논산시 9명, 부여군 7명, 계룡시 3명 등의 순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장 제5조에서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구제급여라 정의하며 요양급여(병원비), 요양생활수당(생활비),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된다. 2022년 구제급여는 다음과 같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자가 사망 후 신청해 인정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4,380만원, 석면폐1급과 미만성흉막비후 2,190만원, 석면폐2급 1,460만원, 석면폐3급 730만원이다. 생존피해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154만원, 석면폐1급과 미만성흉막비후 111만원, 석면폐2급 74만원, 석면폐3급 37만원이다. 지급기간은 5년이고 갱신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석면폐2급과 3급은 지급기간이 2년뿐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지원센터는 매달 석면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석면피해를 입은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이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굳이 과거에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석면광산에서 근무하지 않았어도 석면광산 근처에 거주했던 이들에게도 석면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다. 또한 농어촌 주택의 방치된 슬레이트와 학교 건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실시됐지만 개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 또한 문제되고 있다.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단 지역 특성 및 신청자 소득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비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 비용이 자부담으로 처리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슬레이트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되었다. 아직도 석면피해로 인해 거친 숨소리를 내는 이들이 곳곳에 많다. 그들의 숨소리를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 : 김보리 (기록노동자)

[홍성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주민들
김상배 + 김광태 + 이남억

광천시장보다 사람이 많았던 덕정마을

홍성군의 경우 광천석면, 홍동석면, 홍성석면, 충남석면, 금마석면, 율립석면, 대홍석면, 청광석면 등 8곳이다.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큰말에 위치한 광천석면광산은 1938년 개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석면 광산이다. 일본인이 1938년 11월 21일에 광업권을 설정·등록하면서 운영되다가 1940년 (주)극동스레이트가 광업권을 이전 등록, 1942년 (주)극동석면광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잠시 폐광됐다가 1953년 채광 인가가 났고, 1962년 국유재산에 편입되어 한미협정 권리로 귀속됐다. 그해에 서울 출신 신명균에 의해 (주)광천석면개발이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1986년에 폐광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완전히 폐광 등록된 것은 1996년 9월 17일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마을주민 고(故) 박순동 씨가 광산 총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내화성, 산에 부식되지 않는 성질로 매우 가벼우며, 광산 개발을 통해 많은 양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함, 전투기, 탱크 등에 사용됐다. 이에 일본에서는 석면광산을 통해 군수 물자를 조달했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70년대 석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동되다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폐광됐다. 1970년대 생산된 석면은 슬레이트 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돼 광천석면광산에서 생산된 석면은 서울이나 김포 등으로 보내졌다. 광구 면적은 19만6625평이며, 1971년부터 1986년까지 19만379톤의 석면을 채굴했다.

광천석면광산에는 총 4개의 갱구가 있어 광부들이 경사 150도 정도 깊이로 들어가 구멍을 내어 합바(일종의 다이너마이트를 말함)를 넣고 화약을 붙여 폭파시켜 광석을 채취한다. 광차(철관으로 만든 광석을 운반하는 구루마를 말함)에 광석을 싣고 와 크라샤(돌을 작게 부수기 위해 철로 만든 일종의 맷돌)를 이용해 광석을 자르고 이를 도시(얼맹이를 말하며 어레미의 방언이다. 어레미는 곡물 알갱이나 모래나 흙 등을 크기에 따라 선별하거나 불순물을 걸러낼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에 걸러내면 돌은 빠지고 석면만 남게 된다. 광석에서 석면을 채취하는 작업을 '신꼬'라 부르는데 주로 노면에서 여자들이 망치로 광석을 깨트려 석면을 채취했다. 섬유질 형태의 석면은 숨처럼 뿜쳐졌는데 광산 근처



10년 동안 광천석면광산에서 광석 실어나르는 일을 한 홍순철 씨(사진=김보리).



1960년대 말 광석을 실어 나르는 광차 앞에서 사진을 찍은 광부들 모습(사진제공=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이정자).

어린이들은 이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고 한다. 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벽계리 백동마을과 신진리 신촌마을, 은하면 화봉리 야동마을 주민들도 광천석면광산에서 일했고, 홍성읍, 은하면, 장곡면, 보령 등지에서도 일을 하러 오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석면광산이 운영되던 덕정마을에서는 광부들이 일본 징용에서 면제되었다. 광천석면광산이 운영되던 당시 마을주민 고(故) 박을규 씨와 편재수 씨가 주막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마을에 보따리 장사와 이발사가 자주 왕래했다. 고(故) 김동에 씨가 광산이 운영되던 시기에 자택에서 주막을 운영했다. 광천읍 소재지에 있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와 광부들을 대상으로 막걸리를 판매했는데 간주날(월급 타는 날을 말함)이면 그동안 외상으로 마시던 술값을 내고는 했다고 한다.

1936년생 홍순철 씨는 1966년경부터 10년 동안 광천석면광산에서 일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광차에 광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광차 개수대로 일당을 받았고 함께 일한 광부와 일당을 나눠 가졌는데 이를 ‘웃계’라 불렀다. 갱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국반수’라 불렀는데 이 일을 1년 정도 했다. 갱 양쪽에 나무 기둥을 사다리꼴로 세워 갱 천장을 바치는 나무인 하리를 나무 기둥과 천장 사이에 끼우고, 돌과 돌 사이 틈에는 각뿔 모양의 나무 조각인 살창을 박아서 무너지지 않게 했다. 국반수가 웃계보다 돈을 적게 주고 힘도 더 드는 일이었다. 광산에서는 작업복을 제공하지 않아 일하고 오면 온몸에 뽀얗게 석면을 뒤집어쓰고 나오고는 했다.

1938년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어 운영된 광천석면광산을 ‘세끼멘꼬 광산’이라 불렀으며 광부에게는 발목까지 오는 신발인 ‘지까다비’와 ‘미깡’이라는 정종, 설탕과 단무지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부들 대부분이 안전복이나 마스크,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광산에서 일을 하며 석면의 위험에 노출됐다. 광산에서는 덕정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마을 동북쪽에 사택 10여 채를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사택은 하나의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방 한 칸과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는 형태였으며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했다. 광부들에게 온전한 쉼터로서의 집보다는 그저 잠을 자는 숙소에 불과했다.

1971년부터 광산이 폐광되기 전까지 광부로 근무했던 덕정마을 주민 1944년생 박재덕 씨 월급 장부를 살펴보면 그 당시 한 달 기준 두 번에 걸쳐 월급이 지급됐다. 6월 하반기에 급식 225원, 휴일수당 810원, 공장 일(석면을 공장에 보내는 일) 1,466원, 분광(석면을 포대에 담는 일) 2280원, 크라샤(광석을 가루로 만드는 일) 739원, 사석(광석을 깨고 남은 돌) 1,680원으로 총 7,200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재덕 씨는 대구 출신으로 부인 1950년생 김옥선 씨와 1971년 광천석면광산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박재덕 씨 부친 고(故) 박병태 씨가 광산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5일은 야간에 5일은 주간에 근무했으며 폐광 후 1987년까지 장항제련소 비료공장에 사석을 보내는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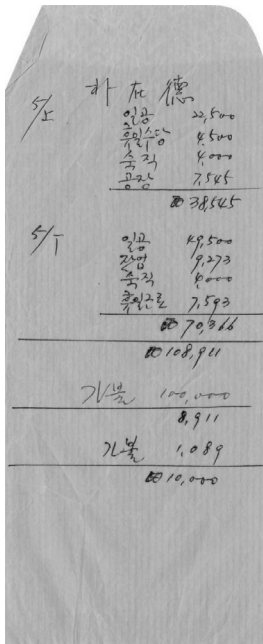
“굴착기로 돌을 뚫어 구멍에 합바를 넣어 화약을 붙이면 광 터지는 소리에 귀 점막이 터지기도 했어요. 나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악성중피종3급을 판정받았어. 광차에 광석을 실어 오르다가 죽은 이들도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죽은 이들도 있지. 포대에 돈을 넣어와 인부들 일당을 지급했을 만큼 사람이 많았어.”

대부분의 광산은 노천 형태로 채집이 이뤄지면서 광석을 깰 때 1차 분진이 발생한다. 이후 석면을 분리하는 작업인 신키포를 하면서 2차 분진이 발생한다. 석면 잔여물이 마을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를 이용해 자갈을 깔기도 했다. 석면 분진이 발생하면서 각 집마다 마루와 장독대에 석면가루가 뽀얗게 가라앉아 부녀자들은 걸레질과 청소하느라 바빴다고 한다. 광산에서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석면피해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광부들은 노동의 피곤함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판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며 고(故) 김동에 씨가 큰말에서 운영하던 주막이나 마을회관 옆 구판장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냈다. 석면을 그대로 먹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재덕 씨와 아내 김옥선 씨(사진=김보리)



박재덕 씨가 보관하고 있는 월급봉투와 장부(사진=김보리).

월급 봉투

월급	과	271년도	주입금액	지출금액	차입잔액
6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7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8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9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10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11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12월	하	박재덕	2,000	1,000	1,000
합계			24,000	12,000	12,000

물레질로 석면섬유 생산했던 구항면 청광마을

구항면 청광리 청광마을 4반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석면광산이 있었다. 구항면지에 따르면 1932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관보에 홍성군 홍주면 구항면 소재 금은광 60만평에 광업권을 설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광산에서 일했으며 광산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설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부녀자들은 석면공장이나 자택 등에서 물레를 이용해 석면섬유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다.

청광마을 김광태 이장은 “할머니(고(故) 박갑예)가 제일 많이 하셨고 어머니(고(故) 정규인)도 조금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할머니가 물레질을 하면서 콧잔등이 하얗게 되곤 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들었지”, “예전에는 석면에 수수풀을 쭈어서 방바닥에 바르고 장관을 깔고 생활하기도 했어요”라고 말한다. 고(故) 정규인 씨는 석면폐2급을 진단받았고 장례비를 지원받았다.

청광마을 김상배 노인회장의 모친 고(故) 천순월 씨도 물레질을 해 석면섬유를 생산했다.

“당시 부녀자들 거의 대부분이 석면섬유를 생산하는 일을 했어. 지금 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

1946년생 김상배 노인회장은 석면광산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석면폐2급을 진단받았다. 자주 기침을 하고 지금은 100m도 걸기가 힘들다고 한다. 현재 청광마을에 거주하는 이들 중 석면 관련 질환자는 20여 명이다.

해방 이후 폐광되었다가 1970년대 조선대학교에서 이를 인수해 1980년대까지 사문석을 채굴해 포항제철로 보내졌다.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는 산등성이 너머 온유마을에 있는 저수지로 흘러가 주민들이 이용했다. 생산된 사문석은 트럭에 실어 운반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유출됐다. 또한 석면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놀잇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석면공장이 있던 흔적(사진=김보리).



광산자리를 알려주는 청광마을 김상배 노인회장(사진=김보리).

“석면 멍치를 서로의 옷 속에 넣어주면 따가워서 이리저리 날뛰니까 그게 재밌어서 그거 가지고 놀았지.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들이 갖다달라고 해서 가져다주기도 했어.”

김광태 이장은 “트럭이 지나가면서 온 동네가 하얗게 분진이 날렸고 벼바심을 하기도 힘들었어요”라며 “사석과 흙을 섞어 도로를 깔아 사용하기도 했죠”라고 설명했다. 또한 “3반에 작은 공회당이 있었는데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함석지붕을 씌웠는데 걷어낸 슬레이트를 쌓아놓았지만 10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광산 근처에 노출되어 있는 사문암을 김광태 이장이 보여주고 있다(사진=김보리).

석면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필요

“내 생각엔 한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돼. 대화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 석면피해 안 입은 사람하고도 얘기해봐야 돼. 그래야 폭이 넓어져.”



구항면에 거주하는 이남억 씨(사진=김보리).

1946년생 이남억 씨는 결성면 성남리 내남마을 출신으로 여섯 살에 광천으로 이사했고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때 구항면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광천에서 거주했던 당시 친구들과 광천역전에 쌓여있던 석면 광석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고 한다. 2000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석면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1년 순천향대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석면폐1급을 진단받았다.

Q. 석면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A.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가서 검사받았지. 숨이 가쁜 증상이 있었지. 다른 데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에 석면이 박혀 있다고. 이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지. 치료방법은 없고 처방전도 없고. 병원에서 약 처방을 안 해줘. 본인이 해달라고 해야지. 숨이 가쁘니까 약을 주시오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덜 한 기분으로 먹는 것뿐이지 의사가 하는 말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악화가 되면 됐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그냥 맘 편케 먹으라고 하더라고. 함께 놀았던 학교 동창들 중에 나만 걸렸어. 광산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1급 받은 사람 꽤 있어. 내 고향에도 석면광산이 있었어. 거기서 석면을 채취해서 운반해 팔다가 석면이 안 나와서 중단했어. 거기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있어. 폐석면 환자들이.

Q.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A. 석면 크기가 더 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 20여 년 전에 석면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관정하는 의사들 굉장히 원망스러워. 폐암이 완치가 됐어. 석면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석면이 박혀 있으면 석면 등급을 줘야지, 해지가 되었던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급이나 3급을 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우리 지역에도 한 사람이 폐암이 완치돼서 해지가 됐는데 완치되면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 사람이 받던 걸 안 받으니까 생활이 걱정되니까 정지열 위원장에게 나 이거 좀 받게 해주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나? 그런데 몇 개월 뒤에 2급 판정을 받았어. 의사가 착각을 했던 오진을 했던 그게 무슨 판정관이야? 내가 그걸로 의사를 고발할까도 생각해봤어.

Q. 석면구제법에 보면 1급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5년 지나면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 계속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A. 1급은 그런데 2급이나 3급은 한 번 받으면 끝나. 그래서 내 생각에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증상은 같아. 오히려 3급인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육안으로 볼 때. 등급에 차이를 두지 말아라 이 말이야. 석면이 폐에 침투가 되었으면 모두 고르게 줘라 이거야.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평등하게만 줘라. 내 욕심으로 1급이니 더 받아야 된단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Q.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던 당시에 목수로 일했던 분들 중에 석면폐 환자들이 꽤 있던데 이분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업재해 안 돼. 회사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일당 받고 일하거나 날일로 일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걸 되게끔 만드는 건 아니지. 농촌에서 초가집을 다 슬레이트로 개량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개인보고 하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 할 수가 없잖아. 철거하면 돈이 드니까 슬레이트 위에 함석 덮어서 쓰는 집도 많아. 이런 건 100%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지방자치와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량해줘야 한다 이거야.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Q. 마을에 가면 처리하지 못한 석면이 남아있어 비닐로 덮여있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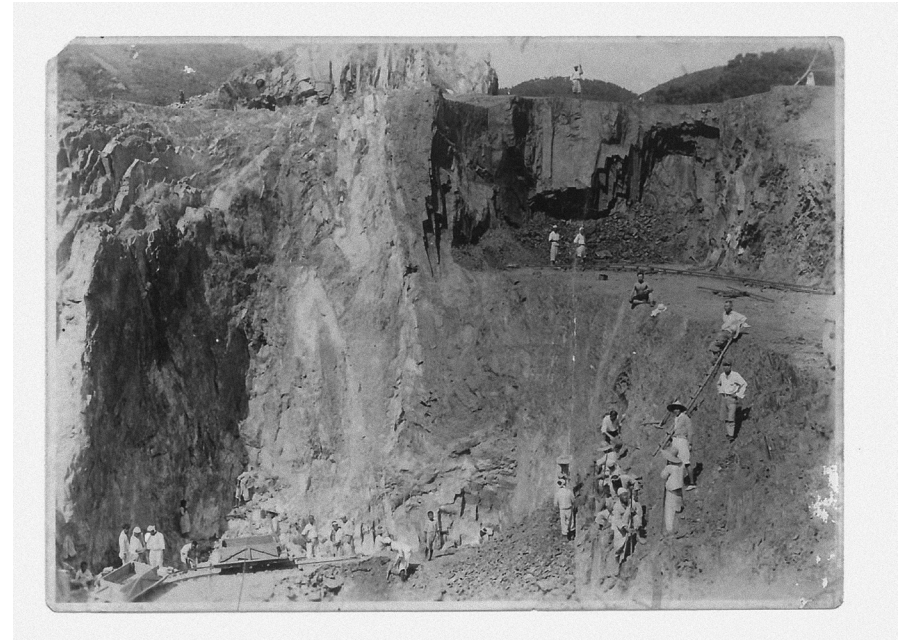
A. 업체가 하면 가져가는 것까지 비용에 추가되는데 개인이 할 때는 돈이 없으니 비닐로 퐁퐁 싸서 그냥 두지. 농촌에 무슨 돈이 있어.

Q. 석면의 위험성에 알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환자가 계속 늘어나잖아. 숫자가 늘어나니 심각한 거지. 광산 폐쇄하고 복토했는데 자꾸 생겨. 청광리도 보이는 곳만 복토했어. 돈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야.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석면센터가 천안에 있어. 석면 환자가 홍성에 제일 많아. 다음이 보령, 청양, 예산이야. 그런데 센터가 뭐여? 석면피해자를 위한 센터여. 환자도 없는 천안에 센터가 있어? 내가 그래서 도지사에게 면담 신청하려고.

Q. 정지열 위원장이 생전에 계실 때는 그래도 정지열 씨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알리고 그랬었는데….

A. 정지열 씨가 고생 많이 했지. 내 생각엔 한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돼. 대화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야.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 뭐든지 덩어리가 커야 힘이 되지. 석면피해 안 입은 사람하고도 얘기해봐야 돼. 그래야 폭이 넓어져.



[보령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
신인철 + 조용학 + 박공순



현재 신인철 씨가 거주하는 자택 근처 광산이 있던 자리(사진=김보리).

보령시지에 따르면 1912년부터 1983년까지 설정된 보령 광업권 현황은 석탄이 265건 중 12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석면은 25건으로 9.4%에 해당된다. 보령시는 대보광산, 중앙광산, 신석광산, 오천광산, 보령광산, 진죽광산, 한국광산 등 7곳이다.

보령시 정전리에 위치한 보령광산은 일제강점기 개발됐다. 광산에 다니는 사람은 일본 징용이 면제되어 마을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일을 하러 왔다. 이곳에서 생산된 석면은 모두 일본으로 보내졌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신석산업과 경기화학에서 인수, 사문암을 생산해 청소역, 주포역, 광천역 등을 통해 장항 풍농비료로 보내졌고 1985년 폐광했다. 청소면에는 정전리, 성현리, 재정리에 광산이 있었고 오천면 교성리에 대보광산이 있었다. 보령광산은 2필지로 구분되어 신석산업에서는 서울 출신 이 광이 광주였고 경기화학의 산주는 서울 출신 박인성이었으며 야현리 통남마을 주민 신구현 씨가 감독으로 근무했다. 대보광산 광주는 허 준이었으며 감독은 심 희, 공장 감독은 김덕순 씨다.

“상여도 매고 별짓 다 했어요”

보령광산에서는 2개의 공장이 운영됐다. 현재 마을회관 느티나무 근처에 제2공장, 현재 신인철 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제1공장이 있어 1공장에서 채취한 사문석을 2공장으로 보내 제분했다. 광산은 노천광산 형태로 높은 산처럼 사문석이 쌓여있는 형태로 다이어마이트를 이용해 폭파한 뒤 채굴했다.

1967년부터 4년 정도 근무한 1951년생 신인철 씨는 열여섯 살에 사문암을 기계를 이용해 제분하는 일을 하다가 이후 스물한 살 군대 가기 전까지 사석 운반 일을 했다. 2011년 폐석면2급을 판정받았고 2015년 폐암이 발생해 현재 투병 중이다.

“2007년부터 국회에 데모하러 다녔어요. 그때 정지열 씨가 위원장하고 내가 부위원장 했죠. 상여도 매고 가고 별짓 다 했어요. 국회의원 다 쫓아다녀봤는데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근처 제2공장이 있던 자리(사진=김보리).



사문암 제분일과 사석 운반일을 했던 신인철 씨(사진=김보리).



신인철 씨 자택 근처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광석 모습으로 보이는 하안줄이 석면줄이다(사진=김보리).



신인철 씨가 광석에서 석면을 긁어 보이고 있다(사진=김보리).

장관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진폐증 환자들처럼 석면피해자들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어도 보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석면폐1급과 폐암도 5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신인철 씨 부인 김윤순 씨와 모친, 동생도 석면폐3급을 받았다. 신인철 씨는 폐암 판정 이후 월 154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20일 동안 입원한 동안 치료비가 1200만원이 나왔다.

“폐가 늘려서 신경치료와 방사선 치료받고 먹고 쓰고 거기에 구십 넘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8년째 있어요.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광산 근처 인근에 대한 복토 작업을 실시했다. 광산 주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위해 농지기능 유지,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토양개량 복원을 시행하며, 복원 중 영농 손실을 보전하고자 휴경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15개소, 2010년 11개소, 2011년 11개소 총 37개소에 대한 석면광산 복토를 시행했다. 하지만 보령광산은 복토되지 않은 채 개인이 분할 매입해 현재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충남에 광산이 모두 25군데인데 광산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광산 사무실이 있던 자리예요. 원래는 이 밑에 살았지. 광산을 정부에서 사서 복구해주고 이주시켜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대보광산에서 생산된 백토는 흙속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흙속에 포함된 석면을 제외하고 고운 흙만을 생산하는 것이다. 반면 보령광산에서는 일제강점기에는 석면을 생산했고 광복 이후에는 석면을 채취하고 난 뒤 부산물인 사문암을 기계로 이용해 분쇄했다. 광석에서 석면을 분리하는 신키는 주로 부녀자들이 보자기를 깔고 행해졌다. 광석을 크라샤에 넣어 작게 분쇄한 뒤 로라(일종의 물레방아)로 더 작게 분쇄한다.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발생한다. 광산에서 일하던 이들에게는 마스크가 제공되지 않아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일했다. 광산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종종

웃게로 일하기도 했다. 5명이 한나절 동안 정해진 분량의 광석을 채굴하면 광차 수만큼 나눠가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생산 능률이 올라 나머지 시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석면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슬레이트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낡은 초가집을 부수고 슬레이트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신인철 씨는 헌집 건축 일을 다니면서 2007년 7월 1일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2007년 6월까지의 슬레이트고 뒤고 다 폐기물로 나갔어. 근데 딱 7월 1일 되니까 폐기물 다 고르라고 그런겨. 폐기물을 돌려 보내는겨.”

새마을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붕개량을 하러 다녔던 이들도 석면폐 관정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잘 살기 경제정책에 의해 평생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파진 것이다.

“멀쩡한 초가집 다 때려 부수고 슬레이트로 덮었잖아. 지금은 더 잘 사니까 보상해줘야 할 거 아니냐. 슬레이트만 뜯어가지 말고 덮는 것도 지원해줘라 이 말이여.”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붕개량의 경우 2020년부터 최대 42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개인 축사나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와 지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슬레이트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고령자들로 철거 후 지붕 교체에 대한 자부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데모하러 갈 때면 보령 정보과나 수사과에서 나와요. 차 타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겨. 타지 말래. 그럼 나 고쳐다오, 그럼 안 갈게. 그러면 앞장만 서지 마쇼 그려. 그래도 그거 다닐 때가 좋았지.”

폐암 투병 중인 신인철 씨는 거의 매일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4년 전에 광산 사무실이 있던 자리를 매입해 흙을 돋우고 건축한 자택 거실 통유리창 너머에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석면 광석이 보인다.

“우리 아들은 그거 때문에 죽었슈.”

대보광산은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다가 광복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운영됐다. 대보광산에서 근무했던 1936년생 조용학 씨는 폐석면1급, 1943년생 박공순 씨는 폐석면2급을 진단받았다.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대보광산은 광복 후 서울 출신 공 씨라는 사람이 인수, 조용학 씨의 장인 고(故) 김덕순 씨가 감독으로 근무했다.

대보광산은 2~30명 정도의 광부들이 일한 소규모 노천광산으로 주로 백토를 생산했다. 광부들은 이를 ‘만벌’이라 불렀는데 노천에 널려있는 사문석에 묻어있는 일종의 진흙과 석면을 분리해 고운 입자의 백토로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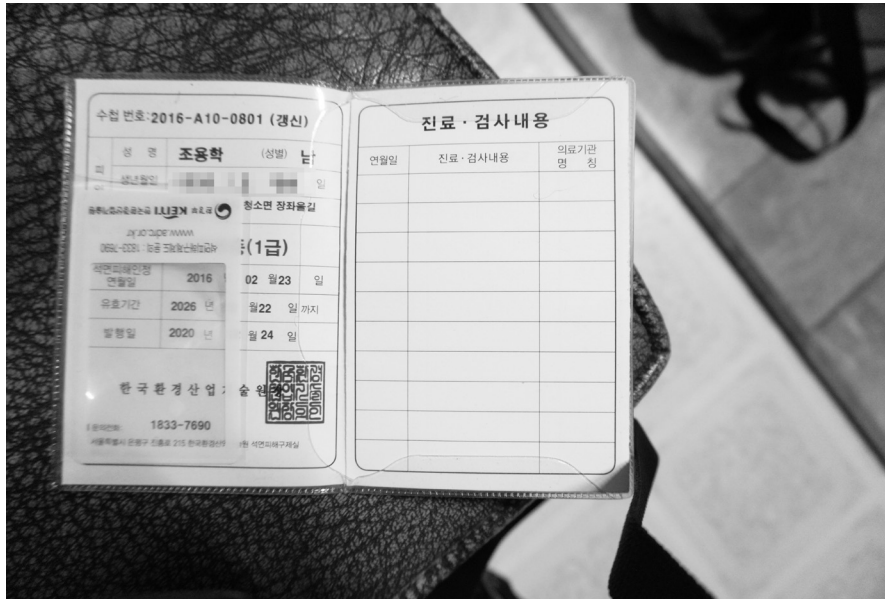


석면광산일과 슬레이트 지붕 설치 경험을 가진 조용학 씨(사진=김보리).

사문석에서 석면과 진흙을 분리하는 일은 주로 부녀자들이, 사문석을 옮기거나 채굴하는 일은 남자들이 했다. 제분공장으로 옮겨진 진흙과 석면은 철판 위에 장작불을 피워 말린 뒤 제분기에 분쇄해 얼맹이에 한 번 더 걸러 고운 입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백토는 건축자재나 전봇대, 굴뚝 등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제분공장은 미군용 천막 2개 형태였고 한 곳은 창고로, 한 곳은 제분기로 분쇄하는 일을 했다. 제분공장은 1960년대 말 지리적으로 청소역이 인접한 청소면으로 옮겨져 운영됐다. 조용학 씨는 30대부터 20년 동안 근무했다.

“여기서 광물하면 서울 공씨한테 보냈쥬. 거기 연돌공장이 있었슈. 여기는 주로 흙이어유. 거기에 석면줄이 박혀 있었쥬.”

곡괭이나 함마를 이용해 쌓여있는 사문암을 캐내는 일을 ‘막장’이라 했는데 이들 품값이 가장 높았다. 광산에서 생산된 사문석을 리어카, 지게, 철통 등을 이용해 제분공장으로 옮기는 일은 한 번 운반할 때마다 운반한 만큼의 일당을 받았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7~번 정도를 왕복하는 일이었다.



조용학 씨의 석면피해의료수첩(사진=김보리).

“가끔 불 보느라 철판 위에서 자기도 했슈. 뭐 따뜻하고 괜찮어.”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조용학 씨는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러 다니는 일을 10년 동안 하기도 했다. 목수와 함께 한 팀으로 다니며 청소면, 오천면 일대 지붕공사를 다녔다고 한다.

“아직 우리 마을에도 한 집이 슬레이트집 있어요. 구십 넘은 노인네라 가고 나면 자식들이 집 다시 짓는다고 그냥 사네유.”

2008년부터 시행된 석면질환자에 대한 검진이 시작되면서 정지열 씨와 알게 됐다. 첫 검진에서는 2급을 받았다가 2년 뒤 폐석면1급을 받았다.

“우리 아들은 그거 때문에 죽었슈.”

어릴 적 조용학 씨를 따라 20대 초반에 잠깐 일했던 아들 1963년생 고(故) 조정재 씨도 석면폐1급을 진단받았고 폐암 투병 중 2020년 작고했다.

“말하면 숨이 가쁘고 겨울에는 더 힘들어”

“다만 한 폰이라도 별려고 다녔지. 동네에 순사 다니던 사람이 서기로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 광산 함 다녀봐라 해서 대닌겨.”

현재 주포면에 거주하는 1943년생 박공순 씨는 열일곱 살부터 스물한 살까지 대보광산에서 일을 했다. 주로 광석을 지게에 저서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 박공순 씨 자택 옆에 미군용천막으로 된 제분공장이 있어 모친과 형제들이 모두 광산과 제분공장에서 일했다. 대보광산은 비오는 날과 명절을 제외하고 주간에만 운영됐다.

“지게로 저 나르다가 장난삼아 먹어봤지. 백토 먹으면 아삭아삭해. 백토 나오면서 석면도 나와. 먹을만혀.”



열일곱 살부터 스물한 살까지 대보광산에서 일한 박공순 씨(사진=김형수)



홍성의 석면자료를 살펴보고 당시 보령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박공순 씨(사진=김형수).

박공순 씨는 스물아홉 살에 혼인 후 석탄광산을 7~8년 정도 근무하다가 방앗간 운영을 40년 정도 했다. 박공순 씨와 동생들은 석면폐2급, 모친은 석면폐3급을 진단받았다.

“기침을 철렁철렁한다고 해서 내 별명이 박철렁이라고 했어. 1급도 예전에는 2년밖에 안 줬어. 우리가 계속 데모하고 다니고 해서 1급은 해 준거야. 그런데 2급하고 3급도 같이 지원해줘야지. 말하면 숨이 가쁘고 겨울에는 더 힘들어. 농사짓는 것두 못 하겠구.”

2009년 1월20일 국회 앞에서 부산, 대구, 충남,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은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도 별짓 다했어. 정지열 씨가 국회 찾아가서 울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편 안 들어줘. 광산의 광자 모르는 양반들도 석면폐1급이야. 광천 근방 가면 피해자가 많아.”

광산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았어도 석면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석면 환자들이 더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인해 정기검진을 가지 못했던 박공순 씨는 지난 7월 2년 만에 병원을 찾았다. 폐기능 검사와 CT, X-RAY 촬영 등을 마치면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병원 갈 때 택시 보내줬어. 다음날 결과 보러 또 가야 하는데 내일 또 택시 보내줄래? 왜 정부 돈 낭비혀? 이러면 그럼 좀 기다리슈, 이래. 그래서 하루에 다 보고 와. 다른 이들은 이틀 걸려. 근데 택시 보내는 것두 다 무산시키더라구.”

현재 순천향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자차가 없는 이들은 불편한 일이기만 하다. 환경부는 석면건강관리수첩자, 석면피해의료수첩자, 건강영향조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택시서비스를 연간 운영, 홍성, 보령, 기타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서비스는 2016년부터 2018년 2년 동안만 지원하는데 그쳐 석면피해 환자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박공순 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 시국이 더욱 고역이라고 한다.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욱 숨이 가쁘고 숨 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광산에서 일했던 광부들도 늙어가고 있다. 10년 후면 광산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홍성 및 보령 지역 석면피해 조사 참고자료]

광천읍지
구항면지
은하면지
보령시지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 마을지 (2021. 9)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 충남지역 석면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21. 9)

홍주신문, 기획특집 '일제시대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 충남, 안전지대일까'(2017. 8. 11)

[예산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
이병기 + 신동실 + 고광채

석탄광산에서 일하며 석탄, 석면 분진 들이마서

예산군 광시면에 거주 중인 이병기(67) 씨는 석탄광산(백월탄광)에서 13년을 일했다. 2008년 폐기중 진단을, 2021년 석면폐1급 판정을 받았다.

마을 방송을 알리는 이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아, 이장입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석면피해검진을 해주니 마을 주민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검사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검사를 해주니 손해 볼 거 없다는 생각으로 이병기 씨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이 차례대로 이동검진차량에서 1차 검진을 받았다. 전문의가 문진, 진찰, X선 촬영을 했다. 2008년 석탄광산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폐기중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서 불편했다. 휴대폰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웬지 불안하다. 전화를 받으니 1차 검진결과를 알려주면서 2차 검진을 해보란다.

예산군에 따르면 광시면 내에는 1985년 폐광한 홍동광시 광산과 미곡리와 서초정리에 폐석면 광산이 있다. 석면의 입자는 멀리 퍼질 수 있어 석면광산의



석탄광산에서 일했지만 광맥이 연결돼있어 석면질환도 있는 이병기 씨(사진=김보리).

직접적인 노출지역뿐만 아니라 반경 2km내인 시목1·2리, 용두리, 장신1·2리도 검사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이병기 씨는 장신리에서 태어나 16살부터 백월탄광에서 13년을 일했다.

“2020년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다 가서 가슴 사진 찍고, 검사했어요. 근데 내가 걸렸나봐, 재검 받으라고 연락이 온 거야. 급하게 병원 예약해서 검사 받았는데 처음에는 폐암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다행히 다시 검사했는데 폐암은 아니고, 석면폐1급 나왔지.”

장신리에는 1958년부터 석탄을 캐는 백월탄광이 운영되었다. 장신리에서 태어나 자랐던 이병기 씨는 16살이 되자 먹고 살기 위해 집과 가까운 탄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 돈벌이가 되는 탄광에 다녔다. 나이가 어렸던 그는 탄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탄광 밖에서 석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20살이 되자 돈벌이에 더 유리한 일을 해보고 싶었다. 동네 형을 따라서 굴진작업에 발을 들였다.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갱도를 뚫는 작업을 굴진작업이라 한다. 탄맥이 존재하는 곳까지 갱도를 뚫어 가는 작업이 굴진인데, 운반을 위한 갱도를 뚫는 작업도 포함된다. 화약발파를 위해 암석을 뚫고, 그 구멍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한다.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암석이 부서지면 치우고 지주목을 설치한다. 석탄을 캐내기 위한 굴진작업을 하는 사람을 선산부라 불렀고, 이병기 씨는 3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선산부의 오야지(우두머리)로 1989년 백월탄광이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일했다.

“성냥갑만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암석을 뚫는 일을 했어요. 광맥을 찾아서 화약을 놓고,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리고 불을 붙여서 발파하는 거예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타들어갈 때는 마음이 급하죠. 얼른 피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폭발할 때 소음도 크고 암석이 부서지면서 돌도 날라 오고, 분진도 많이 날려요.”

백월탄광에서 13년을 근무한 이병기 씨는 입과 코로 들이마신 석탄의 검은

분진으로 폐기중 환자이기도 하다. 석면폐1급으로 판정되자 탄광에서 일했던 그 당시를 떠올린다. 굴진작업을 하면서 때로는 하얀 분진이 날리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백월탄광은 석탄이 주성분인 탄맥이었지만 암석을 깨다보면 석면 성분의 산맥도 이어져 있어서 굴진작업 과정 속에서 석면의 분진도 사방으로 퍼졌다. 그의 폐에는 석탄의 검은 분진, 석면의 하얀 분진이 쌓인 것이다.

“작업하다보면 하얀 가루도 많이 날렸어요. 석면이 위험할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날그날 벌어서 살기 바빴지. 늘 먼지가 뿌하게 날려도 참고 하는 거지. 별 수 있나. 먼지를 자꾸 먹으니까 돈이 있으면 돼지고기라도 먹었고,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돼지고기도 못 먹었어. 돼지고기 못 먹은 사람은 일찍 죽었을 거야.”

광부들에게 돼지고기는 몸속에 쌓인 분진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음식이었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두툼한 비계가 분진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믿었다. 마스크도 없이 일하니 분진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을 했다. 고된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치료법이 필요했고, 월급날이면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동료들과 슬레이트 위에 펼쳐놓고 지글지글 구웠다. 기름기가 쏙 빠져 담백한 돼지고기 한 점과 막걸리 한 잔이면 그동안의 노고가 위로 받는 듯 했다.

이병기 씨의 자택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벽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가족사진이 눈에 띈다. 사진속의 그는 다소 살집이 있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키가 180cm 정도에 젊은 시절 탄광에서 오야지로 일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늙름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작업은 작은 실수에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몸을 사리는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타고난 배짱과 안전하게 굴진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녔던 그는 현재 폐질환으로 몸무게가 많이 줄어 야위었다. 찬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며 사는데 이 일도 점점 버거워져만 간다.

잔피를 부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설치했는데...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 중인 신동실(75) 씨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지붕개량사업 때 슬레이트 지붕 설치하는 일을 2년간 했다. 2019년 석면폐3급, 이듬해 정기검진 때 석면폐2급 판정을 받았다.

기차를 타고 예산역을 지나간다. 차창 밖을 바라보니 예산의 농촌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한 여름 더위에 곳곳하게 자라는 푸릇한 논밭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 사이사이 농촌마을의 집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붕만은 엇비슷하게 닳아있다. 대체로 함석으로 만들어진 주황색, 파랑색 등 색색의 지붕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규모가 좀 있는 견고한 집들은 기와지붕이다. 그리고 저 멀리 빛바랜 회색의 물결무늬 모양을 한 슬레이트 지붕도 곳곳에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니 창고로 쓰이는 건물과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버려진 축사이다. 간혹 사람이 사는 집에도, 소가 머무는 축사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일을 했던 신동실 씨와 아내 민석기 씨(사진=홍순영).

예산읍에 위치한 신동실 씨의 집도 19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했다. 1972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에는 지붕개량사업으로 짚으로 만든 초가지붕을 시멘트와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잔피를 부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마을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마다 불려나가 일을 도왔다. 농사를 지었지만 틈틈이 꿈을 다닌 것이다.

“25살이었지, 아마. 마을에서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데 전문적인 일은 목수가 하고, 나는 슬레이트를 톱으로 자르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했지. 한 집 하는데 2, 3일 걸렸어. 2년 정도 한 것 같아.”

신동실 씨가 거주하는 마을은 옛 충남방적과 2km내에 위치해 있었다. 을씨년스럽게 문이 잠겨 있는 충남방적은 15만8602㎡(4만 8061평)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폐건물들이 20여 년째 방치돼 있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햇빛, 공기, 물 등에 의해서 점차 부서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충남도는 2019년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석면으로 피해 받은 주민을 적극 발굴했다. 마을마다 이동검진차량이 찾아가 주민들을 건강검진 했다. 그가 살던 마을회관에도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이동검진차량이 찾아왔다.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진찰하며 폐를 찍을 때도 그는 석면폐3급 판정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5년 전부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흠만 만지며 살았던 부지런한 신동실 씨는 석면이 위험한 줄은 석면폐3급 판정을 받고서야 알았다. 그때부터 석면이란 단어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50년 전 슬레이트 지붕 일도 석면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인터뷰 질문이 이어지자, 대수롭지 않게 봤던 석면 가루가 생각났다.

“석면이 위험한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집집마다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거지. 슬레이트를 톱으로 많이 잘랐어. 자르면서 바닥에 가루도 쌓이고 주변에 많이 날렸어. 마스크 같은 건 생각도 못했지. 일이 끝나면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전부 뒤집어졌어. 개울가에서 대충 씻고, 가루 묻은

옷은 집에 들어가서 빨래했지.”

슬레이트는 지붕, 내장, 외장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다.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아니더라도 슬레이트 지붕은 20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깨져서 지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농촌의 주민들은 기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함석지붕으로 교체를 했다. 신동실 씨도 슬레이트 지붕을 20년쯤 사용하고, 함석지붕으로 바꿨다.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때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붕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함석으로 바꿀 때 슬레이트를 내가 직접 걷어냈어.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려면 힘들어. 그래도 40대였으니까 젊었지. 다른 집들은 혼자 못하니까 사람 불러서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슬레이트 위에 그냥 함석 올렸어. 여기도 찾으면 아마 있을 거야. 석면이 무서운 줄 몰랐으니까. 슬레이트는 개울가 옆에다 버렸지.”

현재는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불법이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문 업체만 슬레이트 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의 주민들이 고령화 될수록 얼마나 살지 모르는 노후한 집을 위해 쓰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은 돈을 들여 임시로 때우고, 고치는 방식을 취한다.

2019년 석면폐3급 판정을 받았던 신동실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듬해 석면폐2급 판정을 받았다. 폐가 계속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도 농사를 놓을 수는 없다. 2000평 규모로 쪽파와 토마토를 키우는 그와 그의 아내 민석기(73) 씨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했다. 일 안하고 가만있으면 쉽게 죽는다며 그가 농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죽도록 일한 농사 덕분에 애들도 대학 보내고 집도 지을 수 있었다. 농사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그 단순한 명제가 더운 무더위에도 그를 발로 나가게 만들었다. 옆에 자리해서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아내 민석기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날의 날씨는 또렷이 기억난다며 ‘죽다 살아난 날’이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농사 짓느라고 무리했지. 2021년 9월 18일이야. 그날은 날짜도 잊어먹질 않아.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얼른 119를 불렀지. 피가 멈추질 않아.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지. 119가 도착했는데 순천향대 병원은 입원실이 없어. 급해 죽겠는데 가까운 아산 총무병원으로 갔지. 그때 많이 놀랐지. 좀만 늦었어도... 죽다 살아난 거지. 지금도 무리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얼굴과 팔, 다리 등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가 신동실 씨를 말해주는 것 같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다며 팔뚝에 붙여진 동전만한 살색밴드를 보여준다. 요새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고 왔다고, 혈압이 많이 낮다고 말한다. 3년 전부터는 다행히 농사 평수를 줄였다. 욕심을 내려놓고 땅을 묵힌다고 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내일이면 그는 밭으로 나가 허리를 굽혀 토마토를 돌볼 것이다.

충남방적 가까이 산 것뿐인데...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 중인 고광채(79) 이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엮은 폐건물이 20년째 방치중인 충남방적을 마주한 집에서 살아왔다. 갑자기 폐에 물이 차서 불편하더니, 2019년 석면폐3급 판정을 받았다.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구)충남방적은 산업화 시대에는 섬유산업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시설규모나 매출액,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최대 면방기업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섬유산업이 사양화되고,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2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건물은 오랜 시간이 흘러 흉물스럽게 남아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충남방적은 5만 평 규모의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20여 년째 방치되어 석면 피해 가능성으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초미세먼지처럼 작은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떠돌다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10~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간을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의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양으로도 폐 속에 자리 잡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고광채 씨 집 가까이에 위치한 (구)충남방적(사진=홍순영).

색이 바래고 녹이 슬어 있는 충남방적 정문의 맞은편에는 ‘청소3리’라고 쓰인 마을 표지석이 보인다. 마을로 들어서자 집들이 골목을 끼고 오밀조밀 모여 있다. 집과 집 사이 작은 공간에는 아기자기한 색색의 꽃들이 심어져 있다. 한 주민은 곱게 키운 화분을 골목에 내어놓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꽃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 가을볕에 감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집은 청소3리에서 10년 이상 이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채 씨의 보금자리이다.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의 집은 충남방적 정문과 마주해 있었다.

고광채 이장은 나이 70이 넘어가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폐에 물이 차고 숨 쉬는 게 불편해져 가까운 순천향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진단을 받아도 명확한 병명이 없었다. 몸은 나아지지 않아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고도 나은 것 같지 않으니 불안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병명은 내리지 않고 약만 처방해줬다. 꾸준히 약을 먹고, 불편한 숨을 감내하며 지내왔다. 별 수가 없었다.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는 고광채 이장의 귀에 석면 피해 관련



충남방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고광채 이장(사진=홍순영).

뉴스가 들려왔다. 2010년 즈음이었다.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했고,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실시되면서 대중적인 마스크에도 석면이 인체에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방치되어 있는 충남방적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47개 부락의 이장이 모이고, 환경 관련 교수들도 참여한 이장단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질의를 했다.

“제가 이장단 회의에 참여해서 질의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살았고, 우리 집은 충남방적이 바로 보이는 정문 앞이다. 폐에 물이 차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고, 못 미더워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다. 지금도 숨이 차는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그 자리에 교수들도 있었어요. 교수들이 우리 집에 직접 방문하고, 충남방적도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건강검진 하러 마을회관으로 찾아 왔어요. 저도 그때 검사받고 석면폐3급 판정을 받았어요.”

2019년 충남도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슬레이트 밀집지역 2km이내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 500여명을 이동검진차량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폐 질환이 확인되면 치료비 등 구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환 종류·등급별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광채 이장도 석면폐3급 판정을 받고 매월 영양생활수당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지급이 끝났다.

“석면폐 3급하고, 2급하고, 1급하고 나오는 수당이 달라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숨이 가쁜 증세가 있다고 말해도 별다른 치료가 없어요. 옛날부터 폐병은 잘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 수당은 치료비용이기 보다, 잘 먹으라고 나오는 돈 같아.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잘 먹어야죠.”

청소3리는 인구 천여 명이 거주하는 동네이다. 고광채 이장 외에도 석면피해자는 또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그 외에도

폐질환 환자는 있지만, 공공연히 말하지 못하는 폐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도 마을의 정확한 피해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다.

“마을에 96세 된 어르신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죽 사신분인데 폐에 물이 찬다고 계속 병원 다니시다가, 검진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옛날부터 폐병은 비밀로 했어요. 나 아프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도 이장이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정도만 아픈 걸 알지,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지난 7월 고광채 이장은 석면폐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들고 순천향대학교 호흡기내과를 방문했다. 매년 1회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였다. 여전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피검사, X-레이 사진 찍고, 약만 처방받았다. 치료는 어쩔 수 없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든다. 얼마나 더 살지 기약할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받는 석면피해 정기검진은 적은 것만 같다.

“석면폐 판정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 전부인데, 그 사이에 폐가 나빠져도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잖아요. 상, 하반기 정도만 되어도 좀 안심이 되겠는데...”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군의 석면피해자는 98명이었고, 그 중 예산읍은 40명이었다. 고광채 이장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알려서 충남방직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는 고광채 이장뿐만 아니라, 청소3리 마을주민, 예산읍, 더 나아가 예산군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석면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 잠재적 석면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3리는 다른 마을보다 젊은 층이 많은 편이에요. 젊다고 해도 뭐 50대 이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여기에 꼭 살잖아요. 앞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역 석면피해인정자] 2021년 7월 말 기준 98명
예산읍(40명) / 광시(26명) / 고덕, 응봉(각7명) / 오가(5명) / 삼교(4명) / 대술, 덕산, 봉산, 신암(각2명) / 대흥(1명)

[예산지역 석면피해 조사 참고자료]

2022.10.10. 무한정보신문
충남방직 이번엔 해결될까
예산군, 316억원 규모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추진중
예산공장 매입·철거... 마을공동시설 조성 등 계획
최군수 취임100일 간담회 “조만간 좋은소식 기대”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64103>

2022.08.28. 무한정보신문
예산교육지원청, 학교석면 2025년 '완전제거'
예산군내 21개 초·중·고교 대상... 올해 5개교 철거
대부분 천장석면텍스...화장실석면발라이트도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63680>

2022.05.30. 무한정보신문
폐암 7명, 악성종괴 2명, 석면폐증 67명 등
도, 홍성의료원 위탁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62800>

2020.09.14. 무한정보신문
잿빛 공장 위로 솟아올린 인문학적 상상력
<심 신부의 예산살이, 낯음에서 빛을 보다>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8903>

2020.07.06. 무한정보신문
주민들 “폐석면광산 방치 걱정”
광시 시목·용두·장신리 석면건강영향조사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2020.03.02. 무한정보신문
옛 충남방직 주변 석면폐증 16명
충남도 조사결과...이달 18개 마을 추가 검사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7015>

2020.01.30. 무한정보신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합니다
빈집 정비 등 14일까지 읍면서 신청해야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6706>

[청양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

권혁호 + 안계신

“석면을 봉창에다 넣고 다녔어, 자랑하려고”

청양군 비봉면에 거주 중인 안계신(79) 씨는 1950년대 중후반 비봉광산에서 돌을 깨 석면을 골라내는 작업을 4~5년간 했다. 2018년 가래침에 피가 섞여, 병원에 방문한 그는 폐암을 진단받았다.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과거 비봉광산(석면광산) 자리에서 가동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돌아 갈망골로 진입하면 바로 보이는 저수지 위에 안계신 씨가 거주하는 자택이 위치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의 직선거리는 500m가 조금 넘는다. 안 씨는 지금과 같은 도로가 없던 시절, 갈망골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 석면 광산으로 일을 다녔다.

처음 일을 시작한 때는 여덟, 아홉 살로 기억한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던 시절, 집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모두가 궁핍하게 살던 때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었던 석면광산은 모두에게 좋은 기회였다. 외지에서도 왔고, 막사 형태의 기숙사에 살면서도 일을 했다. 인근



인터뷰 한 석면피해자 중 가장 어릴 때 석면일을 한 안계신 씨와 아내 이순애 씨(사진=김형수).

마을 사람들도 일거리만 있으면 너도나도 다녔고 안 씨의 형도 다녔다. 안 씨 또한 광산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당시에는 주로 청년, 중년 남성들이 ‘납포질’을 하고(다이너마이트 따위의 화약으로 굴을 뚫는 행위), 석면원석을 안에서 캐서 ‘구루마’로 싣고 밖으로 꺼냈다고 한다. 원석을 밖에 쏟아 놓으면 안계신 씨 또래의 어린이 혹은 소녀와 부인들이 돌을 골라 주운 후 자귀 망치로 깎다. ¹ 깎은 원석 사이에서 석면을 골라내 뭉쳐서 수집상들에게 가져다주면 선별한 양만큼 돈을 받았다. 지금은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안 씨는 번 돈으로 공책을 사는데 썼다.

없는 살림살이, 단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생존쟁투의 공간이 바로 석면광산이었다. 안 씨는 이렇게 기억한다.

“캐 나오면 서로 이제 좋은 놈 차지하려고 골라. 그 섬유줄 배긴 거. 서로 뺏고 막. … 굵은 것도 있었어. (검지, 중지 손가락을 보여주며) 이렇게 굵은 거. 그런 놈 차지하려고. 근데 원체 자질한 게 많아요. 아주 자질한 거. 어쩌다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막 노다지지. 그러면, 그걸 차지하려고 막 (달려들고 그랬지).”

그에게 광산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석면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도 했다. 굴을 뚫기 위해 화약을 터뜨리면 감독이 위험하다고 멀리 떨어지라고 야단을 쳤다.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맨손으로 돌을 깎 때는 손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났다. 하지만 석면은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은 신비로운 놀잇감이었고, 석면이 굵게 박힌 돌덩어리는 학용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이자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 같은 것이었다.

“그때는 석면이 나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봉창에 넣고도 댕기고(보관하고), … 어쩌다가 굵은 놈 나오면 기분좋아가지고. … 우리 때는 자랑하고 애들한테. … (석면줄이 굵은 돌맹이를) 나 약정 서랍에다 넣어놨는디. 나중에 보니께 없어. 갖다 버렸는지 없어. 없지 아마 약정 서랍에? 찾다찾다 말았어. 하도 커가지고

1 통산 이 작업을 ‘싹꼬’라고 하는데, 안계신 씨는 ‘도끼치한다’라고 표현하였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학생에게 살림 밑천이자, 노동의 성과이자 자량이었던 석면은 조용한 재난으로 닥쳐왔다. 4년 전, 가래침에 피가 섞여 나와 큰 병원(순천향대 병원)에 가니 폐암이라고 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는 2013년쯤이었다. 비봉광산에 자리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운동을 하다 석면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그 조용한 석면의 침략이 본인에게 압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죽으면 죽었지 항암은 못 받겠다고 말한다. 대신에 예산 소재 병원에서 이따금씩 항생제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검진만 받는다고 한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엔 다소 체념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소용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 씨는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이 본인 하나 남고 다 죽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어쩌면 체념의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부인 이순예(76) 씨는 병원 가는 게 좀 더 편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병원에는 어떻게 가세요?) “며느리가 이제 직장 댕기다 안 댕기니까 며느리 차로 가서, 예산 거기 종합병원 가서 치료받고 거기서 이제 얼추 받았다고 하면 또 집으로 오고 그러쥬. 119 타고서도 가고, ... 병원 좀 가까웠으면 좋지 너무 병원이 머니까”

“석면피해 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권혁호 씨는 1982년 군 제대 후부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본인이 살던 강정리 마을에 있던 소규모(노동자 기준 10-15명 내외) 사문석 광산인 비봉광산에 나가 사문석을 선별하는 일을 했다.

사문석은 석면을 채취할 수 있는 원석이다. 백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은 그 자체로 제철, 제강산업의 용융제 원료, 건축 재료 및 장식용 석재, 비료회사의 용해성 인산비료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¹

청양군에는 비봉면 강정리와 남양면 흥산리에 석면광산이 소재했다.² 비봉광산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부터 1982년까지 석면이 채굴되었다. 석면 채굴이 중단 되었지만 사문석은 2014년까지 계속 채굴되었다.

1 황진연, “사문석의 특성과 활용”, 광물과 산업 제15권 제2호, 한국광물학회지, 48-52쪽, 2002.

2 환경부(보도자료), “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토양 검출”, 2015.



석면광산 위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권혁호 씨(사진=홍순영).

권혁호 씨는 학교 가는 길에 늘 비봉광산을 거쳐 갔다. 권 씨는 나지막한 산인 광산 주변에서 소 꼴을 먹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곱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때론 학교에 가지 않을 적 더위를 피하며 친구들과 광산 안 굴에서 놀기도 했다. 권 씨에게 광산은 친구들과 일상을 함께하던 추억의 공간이었다.

광산 자리에서 사문석 채굴이 이뤄지고, 그 곳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면서 예전 석면광산의 흔적은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석면광산에서 일하던 어른들도 사라진 흔적처럼 세상을 떴고, 그들의 모습만 권 씨의 기억 속에 어렵듯이 남았을 뿐이다.

“그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말이 생각이 안나 머뭇거리며) 그.. 갱도라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막 나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뭐라 그럴까 좀 남루하고 허름하게 그냥 나오시고 왔다갔다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권 씨가 했던 일은 채취된 사문석을 망치(오함마³)로 깨 불필요한 원석을 제거하고 순수한 사문석만 선별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흰색 석면줄이 박힌 사문석을 채취하기 위해선 먼저 암맥에 굴을 낸다. 착암기로 돌을 깨서 굴을 낸 후 그 안에 다이어마이트를 설치해 발파를 한다. 큰 덩어리로 부서진 사문석을 중장비가 퍼내 광산 너른 마당에 깔아 놓으면, 그 때부터 오함마를 든 광산노동자들이 돌덩이를 광광 두드린다. 필요 없는 돌덩이를 골라내 사문석만 모아 놓으면 중장비가 한데 모아 덤프트럭에 싣는다. 덤프트럭은 그 사문석을 ‘풍농비료’로 싣고 갔다고 한다.

사문석을 캐내는 과정에는 수많은 위험이 서늘하게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다이어마이트로 암맥을 터뜨리면 크고 작은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튈다. 발파에 앞서 공장 직원이 광산의 높은 언덕에 올라 발파한다고 소리를 지른다. 발파가 시작되면 쿵쿵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권 씨는 사방으로 튈 돌을 피해 차

밑에나 뒤에 잠시 숨는다. 때론 돌덩이가 인근 민가 지붕에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발파할 때 위험한 장면이 많이 있었죠. ... (돌이) 팡 튀어가지고 사람한테 날아오고 막 그런 위험한 장면들이 (생각나요). 안전 조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 어디 차 밑에 숨어 있다든지 비켜 있다든지 그런 수준이었죠. ... 발파하면서 그 조각들이 심지어는 몇 킬로까지 날아가는 게 있었어요. ... 근방에 가까운 남의 지붕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권 씨는 기계를 다루는 재주가 좋아 착암기가 사문석 바위를 뚫을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잘 다뤘다고 한다. 바위를 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크게 다쳤는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말을 잇기 어렵고 울컥하게 된다.

권 씨가 사문석에 박혀있는 석면줄이 석면폐 및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건 2013년. 권 씨가 다니던 광산이 1990년대 중반



비봉면 강정리 마을회관. 석면광산 위 폐기물매립장 반대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구호도 적어놓았다(사진=신은미).

3 슬레지해머로 어원은 일본어 오오함마(大ハンマー; 큰 망치).

문을 닫고 나서 같은 자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2001년에 들어섰다. 운영 회사가 세 차례 바뀌더니 업체가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시도했다. 권 씨는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매립장 예정지인 광산 속 석면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이미 마을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상태였다. 석면의 위험을 모른 채 사문석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마을에 길을 낼 때 깔았다. 축사나 주택을 지을 때에도 바닥 기초로 사문석 파편을 사용했다. 석면폐를 앓는 동네 아주머니는 석면 광산 주변 밭에서 땅을 갈고 김을 댔다고 한다. 권 씨 또한 사문석 선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석면 분진을 흡입했을 것이다. 석면에서 안전했던 마을 주민이 없었다. 무엇보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작업현장에 사문석 찌꺼기들이 널려 있고, 지금도 민가에 방치된 석면슬레이트도 있다고 권 씨는 말한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문제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막았지만, 석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권 씨의 마음 한켠에 퍽 하니 걸려 있다.

“어쨌든 조금 그렇더라고요. (석면문제를) 이렇게 뚝뚝하게 터놓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지금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권 씨는 이미 석면에 노출된 마을사람들과 이주해 떠난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마을에 도로를 까는데 사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쓰인 사문석을 제거하는 데까지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민들 집에 보관되었거나 지붕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공공이 나서 대대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은 저희 친구 한 명도 오래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석면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 초등학교 때 저하고 똑같이 그 광산에서 놀고 이제 했었으니까 그런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 (석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켜보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야



강정리 마을회관에서 300m도 안 떨어진 건설폐기물처리장(사진=신은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감시를 위해 주민대책위에서 설치한 망루(사진=신은미).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모두가 … 건강권을 회복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지자체에서는 스투트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100%는 아니고요. (석면 슬레이트는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다른 폐기물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면사무소에서 처리해 주고 하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로 집단적으로 찾아서 마을 별로 몇 장씩은 있는 거 갖고 나와라 해서 그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바람은 석면 박물관을 만드는 것. 석면의 위험성, 석면이 일으킨 피해 등 다음 세대가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한다. 동시에 권 씨는 석면 박물관 자리가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곳이길 바란다. 석면광산 자리에 들어서려던 폐기물 매립장을 막아낸 과정을 남겨 다른 지역에 중요한 참고사례로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인터뷰하는) 선생님들처럼 수집할 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하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도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 충남에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해서 사건들이 꽤 많잖아요. … 각 지역별로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놓고, … 산업 건설폐기물 그 자리에다가 그 석면 뭐야 그 박물관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제일 좋죠.”

[청양지역 현황] 정확히 파악 안 된 석면광산 분포

충청남도에 따르면 폐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의심광산은 6곳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비봉면 강정리의 비봉광산, 양사리의 양사광산(가칭), 남양면 홍산리의 구봉광산이 폐석면광산이다. 이 외에도 남양면 홍산리의 명홍광산, 비봉면 강정리의 사문석광산, 청양읍 학당리의 중앙광산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사문석 광산으로 파악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주민인터뷰를 감안하면 강정리의 사문석광산은 비봉광산과 같은 광산으로 확인된다.

채굴실적이 기록으로 남은 광산은 비봉광산과 구봉광산이다.¹ 비봉광산의 분포 면적은 197ha로 82년 이후 사문석 채취 전까지 총 356,514톤의 석면이 생산되었다. 구봉광산의 경우 분포 면적은 277ha로 최종 생산년도는 1974년으로 확인되며 600톤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홍성과 보령의 석면광산에 비해 규모도 작았고 생산량도 많지 않은 작은 광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양사광산(가칭) 명홍광산, 중앙광산의 경우 규모와 생산실적은 찾을 수 없다.

문제는 광산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폐광산이 있다는 점이다. 비봉광산의 경우 최근까지도 사문석 광산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사문석 광산 위치에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주민반대운동이 있어 기록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남양면 구봉광산의 경우 충청남도가 조사하여 확인한 위치 외에도, 석면원석 암맥을 따라 다양한 채굴지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산리 마을 답사 중 만난 한선희(63) 씨는 어릴 적 운영되던 석면 광산이 바로 집 뒤에 있었다고 기억하였다.²

1 충청남도 석면관리 매뉴얼

2 한 씨는 어릴적에 집 뒤의 광산에서 “버럭”이라고 하는 폐석더미 주변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파란들에 흰 석면줄이 박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는 해당 광산(홍산리 산40)은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선희 씨가 남양면 홍산리 석면광산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사진=신은미).



홍산리 석면광산 터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그 일대는 밭과 과수원, 임도로 이용되고 있다(사진=신은미).

한선희 씨가 가리키는 광산 위치는 홍산리 산70번지로 홍산리 17-1번지인 구봉광산 건너편이다. 홍산리 일대 넓게 암맥이 분포한 만큼 그 일대에서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않는 채굴지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한 씨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산이 있던 언덕에는 현재 밭과 과수원이 있다. 밭과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능선을 깎거나 땅을 가는 경우 석면함유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미루어보면 암맥에 따라 석면광산의 채굴지점 또한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도 현재 확인된 광산 위치 주변 이외에도 광범위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토지이용과정에서 광산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맥의 분포, 토지이용이나 개발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위치 확인과 토지이용에 대한 주의 안내가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개발 및 이용된 사문석 광산

상대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 실태확인이 가능한 석면광산은 비봉광산이다.

비봉광산은 일제강점기 부터 석면 채굴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³

해방후 경기광업주식회사가 광업채굴권을 획득한 후 석면이 채취된 것으로 보인다. 강정리 주민 안계신(79) 씨는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비봉광산에서 일을 했다고 말한다. 기록상 1982년 석면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석면이 채취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봉광산은 1978년 석면 및 사문석 광산 광업권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석면채취 뿐 아니라 석면이 박힌 원석인 사문석 채굴도 같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석면 채취가 중단된 후에도 사문석 광산은 계속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정리 주민이었던 권혁호(65) 씨는 1982년 군 제대 후부터 사문석 광산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권 씨에 따르면 1990년 대 중후반 사문석 광산

3 녹색연합, '엄마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2015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한다. 2001년이 되면서 성우환경산업이 비봉광산 자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성우환경산업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사문석을 채굴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⁴ 석면 채취는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원석인 사문석은 지속적으로 채굴되었다.

동시에 비봉광산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가동된 만큼, 사문석 광산의 노동자와 인근 마을 주민의 경우 사문석 채굴로 꾸준히 석면 혹은 석면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사문석 광산 채굴이 종료되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만 가동되지만, 석면 광산으로 인한 문제는 과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10년대까지도 지속된 문제였던 셈이다.

이뿐 아니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운영되던 비봉광산 자리에 2013년 폐기물매립장 건설 시도가 있었다. 2010년 성우환경산업을 인수한 보민환경⁵이 2013년 (주)양지를 설립해 폐기물매립장 개발행위 신청서를 청양군에 제출한다. 이에 강정리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했고 더 나아가 석면의 위험성을 이유로 사문석 광산 복토, 폐기물중간처리업 폐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⁶ 광산을 폐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어떻게 관리 및 활용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양군 석면피해자 현황

충남지역의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수는 총 2,201명으로 전국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9,509명의 23.1%를 차지한다. 청양군은 충남 피해인정자(석면피해+특별유족)의 2.4%로 그 수는 많지 않다. 청양의 전체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청양군 광업권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비봉광산의 채굴권 존속기간은 2003년 2월 3일에서 2023년 2월 3일로 확인되며, 생산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이전에도 사문석 채굴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온라인 구직정보 사이트 ㈜보민환경 검색.

6 폐기물매립장 건설은 중단되었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피해인정자는 61명으로 석면피해자가 51명, 특별유족이 10명이다. 가장 많은 피해항목은 석면폐로 61명 중 46명이다. 석면폐 2급, 3급 환자가 4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급수의 정도가 피해의 크기로 단순 평가되는는 안 되기 때문에 3급이 많다는 점이 경증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오해되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인정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피해자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오해돼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 인터뷰를 고려하면, 석면 광산에 근무 경험이 있거나 인근에 살면서 폐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검사 및 진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구분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비율
	석면피해	석면피해	특별유족	특별유족	소계	소계	
인정합계	2057	51	144	10	2201	61	2.77
약성중피종	39	1	45	2	84	3	3.57
폐암	207	5	74	7	281	12	4.27
소계(석면폐)	1808	45	25	1	1833	46	2.51
1급(석면폐)	132	2	4	1	136	3	2.21
2급(석면폐)	598	13	8	0	606	13	2.15
3급(석면폐)	1078	30	13	0	1091	30	2.75
미만성흉막비후	3	0	0	0	3	0	0.00

[청양지역 석면피해 조사 참고자료]

- 녹색연합, “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2015
- 황진연, “사문석의 특성과 활용”, 광물과 산업 제15권 제2호, 한국광물학회지, 48-52쪽, 2002.
- 환경부(보도자료), “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토양 검출”, 2015.
- 청양군(기자회견문),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 폐기물 관련한 청양군 입장”, 2017.
- 동아일보, “광부암사, 홍성석면광산에서”, 1940.06.09
- 조선일보, “석면은 시한폭탄”, 1973.03.07.
- 동아일보, “석면공해 심각한 미국, 진퇴양난의 건물철거”, 1976.01.17.
- 매일경제, “보상범위 확대 진폐환자 규정개정”, 1977.03.02.
- 경향신문, “석면은 노동자의 적 암유발, 사용금지요구”, 1979.09.06.
- 권순재, “‘석면 공포’ 청양 강정리 주민들 인권위에 진정”, 경향신문, 2014.10.15.
- 박대환, “청양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 폐쇄는커녕 새 사업 낄말이나’, 대전일보, 2013.09.12.
- 윤양수 “석면광산 복구-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 확산”, 충청투데이, 2013.09.12
- 김윤나영-최형락, “석면폐광 옆 초등학교, 애들가지 환자 만들 수는…”, 프레시안, 2015.02.04
- 김윤나영-최형락, “‘석면놀이’ 하던 친구들, 이젠 폐암걸렸는데…”, 프레시안, 2015.02.04.

기록활동가 후기
석면피해자들이 제안하는 석면정책
석면피해기록의 의미와 인터뷰활동 평가
신경섭 시인 추모시

기록활동가 후기: 김보리

광산의 기억을 따라간 지난 일 년

올해 1월 마을그림책 『하얀꽃』을 만들기 위해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을 다시 찾았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마을은 적막감이 감돌며 조용했다. 광산의 기억을 따라 다녔던 지난해,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석면광산이 있던 곳으로 갔을 때는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냈었다. 눈 덮인 석면광산은 그저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다. 몸속에 웅크리며 도사리고 있어 스스로가 잘 살피지 않으면 폐에 석면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폐에 박혀 있는 석면은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커져간다. 약도 없다. 치료 방법도 없다.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저 숨이 차고, 오래 일하면 힘들고, 잦은 기침이 나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려니 했다. 석면광산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릴 적 석면 광석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석면폐 확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과연 누구의 탓일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석면광산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호황기를 누렸다. 정부에 의해 장려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으로 인해 눈부신 가을 하늘을 닮은 하늘색 슬레이트 지붕을 얻었지만 석면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굴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만났던 홍성과 보령의 주민들 모두 이제 모두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마당에 굳이 예전 일을 들추어 못하겠나며 손사래를 친다. 어떤 이들은 석면으로 인해 귀한 아들도 잃었다. 광산의 기억을 따라가는 길에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작고하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을 들을 수 없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했던 그때, 어떤 안전도구도 없이 자신의 몸을 맡겼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소리에 귀 점막이 터지기도 하고, 무너진 갯에서 돌에 깔려 사망한 사람도 있다. 하얀 분진이 꽃처럼 날려도 옷소매로 쓱 한 번 훔치고는 자식들에게 사줄 아이스케키 생각에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그 절박한 노동력이 아니었다면 후세대인 우리는 과연 이만큼 살 수 있었을까 싶다. 그래서 더욱 당신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 깊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록활동가 후기: 홍순영]

늦었지만 필요한 일, 석면피해자와의 만남

세 명의 기록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앞서 석면광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석면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석면광산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을 찾아 인터뷰할 계획이었다. 이미 홍성군 마을조사단에서는 광천에 위치한 석면광산과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마을조사를 통해 수집해 놓은 상태였고, 나는 석면광산에서 사용되었던 낯선 용어를 입으로 되뇌이며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만들려 했다.

예산군의 석면피해자들을 찾았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예산군의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했고, 수소문을 하면 쉽게 찾아지리라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면광산 노동자를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을 깨달았다. 폐광된 지 너무 오래 되었고, 그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이미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 발 늦은 것 같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농촌의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개의 박물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떠올랐다. 석면광산 노동자가 아니어도, 예산군의 석면피해자들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석면의 피해는 다양한 과정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 인터뷰이는 석면 광산 인근에 거주했던 이병기 님이었다. 더운 여름에 집으로 초대받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사전에 공부했던 석면 용어가 아닌 다른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된 거지? 마음 졸여하며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된 후에야 그는 석면이 아닌, 석탄 광산의 기억을 풀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작업하던 백월탄광은 까만 석탄맥이 주를 이루었지만, 암석을 깨다 보면 석면 성분의 산맥도 이어져 있어 석면의 분진도 흡입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인터뷰이는 천상 농사꾼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동실 님이었다. 말주변이 없다며 인터뷰를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다행히 아내 민석기 님이 옆에 앉아 옛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의 집은 충남방적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2km 이내에 있어 '2019년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젊을 때 마셨던 석면분진이 노인이 되어 폐질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꼼짝없이 숨어 있다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석면의 조용한 침묵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떠올랐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대부분의 마을은 초가지붕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신동실 님처럼 마을의 부지런한 일꾼들은 폼을 다니며 슬레이트를 마스크도 없이 자르면서 코와 입으로 흡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어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러니, 다른 마을에서도 추가 건강검진을 한다면 석면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만 같다.

충남방적의 정문을 마주하며 오랫동안 청소3리에서 살아온 고광채 님은 세 번째 인터뷰이였다. 숨어있는 석면피해자를 찾기 어려워 지난 신문에 실린 석면피해 인터뷰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 폐질환 환자가 공공연히 '나 병 걸렸수' 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뿌리 깊은 폐병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석면폐 판정을 받은 모든 인터뷰이들은 기침을 많이 했다. 기침을 많이 하니, 혹시나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피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나아져 폐질환이 있다고 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자신의 석면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기꺼이 자신의 석면피해 상황을 담담히 이야기 해주신 인터뷰이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활동가 후기: 김형수]

무시된 재난에 대해 사회가 응답할 때

인터뷰를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석면광산에 대한 한두 가지의 짧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광산이 있던 자리, 누구네 가족이 다녔던 광산, 학교 가는 길에 지나갔던 광산, 광산 인근에서 농사 짓던 누구누구. 광맥이 분포했던 청양의 지역적 특성이겠지만,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석면을 마주치거나 지나쳤다.

기억 속 광산은 일자리였고, 마을의 활력이기도 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기도 했다. 석면은 쓸쓸한 수입원이었고, 신비로운 보물이자 장난감이기도 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질병으로 고개를 치켜드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왜 위험한 줄 몰랐을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속으로 늘 곱씹었던 질문이다. 정말 몰랐을까, 아님 모른 척 했을까? 어쩌면 모두가 모른 척해야만 단 몇 푼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에 감수했던 것일까. 최소한의 안전장구라도 지급되었다면 어땠을까. 가정일 뿐인 질문과 아쉬움이 멈추지 않는다.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 중 현재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사는 1973년 3월 7일 조선일보 기사다. 미국 상원 분과위원회에서 뉴욕시 시나이대학교 약학대학 어빙 셀리코프 박사는 석면을 가지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30-35년 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6년 동아일보는 건축물 방화제로 사용한 석면이 떨어져 나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 건축물 철거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과 1970년부터 미국은 방화제로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1979년, 경향신문에서는 세계금속노조연맹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다고며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보도되었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고는 무시되었다. 70년대 해외에서 시작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80년대 사문석 광산에서 일한 권혁호 씨의 기억을 빌려보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광산 주변의 마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안내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노출된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질병으로 발병하는 석면 질병은 조용한 재난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조용한 재난이기 보다는 무시된 재난이거나 침묵한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수습하고 대응하는 것, 방치된 위험을 다시 추스르는 것이 무시된 재난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석면광산 노동자, 이미 잠복해 있어 앞으로 발생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마땅한 응답이지 않을까.

【석면피해자들이 제안하는 석면정책】

농촌지역 석면건축자재 처리 실태조사 및 무상 처리 지원

“3반에 작은 공회당이 있었는데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함석지붕을 씌웠는데 걷어낸 슬레이트를 쌓아놓았지만 10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홍성 김광태 씨)

“아직 우리 마을에도 한 집이 슬레이트집 있어요. 구십 넘은 노인네라 가고 나면 자식들이 집 다시 짓는다고 그냥 사네유.” (보령 조용학 씨)

“(석면폐기물 처리를) 한번 파악해서, 예를 들어 마을로 집단적으로 찾아서 마을별로 몇 장씩은 있는 거 갖고 나와라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청양 권혁호 씨)

“농촌에서 초가집을 다 슬레이트로 개량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개인보고 하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 할 수가 없잖아. 철거하면 돈이 드니까 슬레이트 위에 함석 덮어서 쓰는 집도 많아. 이런 건 100%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지방자치와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량해줘야 한다 이거야. 좀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홍성 이남익 씨)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실시됐지만 개인 추가 비용 자부담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다.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지원금과 자부담을 책정하고 있는데, **석면피해가 많았던 충남은 자부담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홍성이나 보령 등 **석면피해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다. 국가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철거와 함께 폐기까지 지원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자부담분 때문에 철거만 한 경우는 대부분 집 근처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실태나 요구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까운 데서 진료와 치료를 : 공공의료기관 활용 및 석면전문병원 설립

“병원 좀 가까우면 좋지. 너무 머니까” (청양 안계신 씨)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얼른 119를 불렀지. 피가 멈추질 않아.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지. 119가 도착했는데 순천향대 병원은 입원실이 없어. 급해 죽었는데 가까운 아산 충무병원으로 갔지. 그때 많이 놀랐지. 좀만 늦었어도... 죽다 살아난 거지. (예산 신동실 씨)

“석면센터가 천안에 있어. 석면환자는 홍성에 제일 많아. 다음이 보령, 청양, 예산이야. 그런데 센터가 뭐여? 석면피해자를 위한 센터여. 환자도 없는 천안에 센터가 있어? 아픈 사람들이고 고령이다보니 아주 불편해. 수시로 갈 수 있는 병원이 홍성이나 보령 등 석면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홍성 이남익 씨)

(병원에는 어떻게 가세요?) “며느리가 이제 직장 댕기다 안 댕기니까 며느리 차로 가, 가서, 예산 거기 종합병원 가서 치료받고 거기서 이제 얼추 받았다고 하면 또 집으로 오고 그러쥬. 119 타고서도 가고...” (청양 이순예 씨)

“병원 다니기가 어려워. 보령에서 천안에 있는 센터에 한 번 가려면 하루를 다 써야하고 버스로 가자면 네다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가야 하니. 예전에는 이를 걸러 검사를 받고 온 적도 있어.” (보령 박공순 씨)

충남에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국가지정 석면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충남 석면피해자의 90% 이상이

홍성과 보령, 예산과 청양에 집중되어 있다. 석면질환자들이 정기검진과 치료를 받으려면 천안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고령이고 차가 없어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먼 소재지 거주자가 검진을 받으려면 버스를 서너 번씩 갈아타야 하거나 꼬박 하루가 걸리는 등 피로감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석면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당장 석면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도내 공공의료기관 활용이 현실적이며, 그러자면 호흡기 전문의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석면질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석면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석면폐 2, 3급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기침을 철렁철렁한다고 해서 내 별명이 박철랭이라고 했어. 1급도 예전에는 2년밖에 안 줬어. 우리가 계속 데모하고 다니고 해서 1급은 해준 거야. 그런데 2급, 3급도 같이 지원해줘야지. 말하면 숨이 가쁘고 겨울에는 더 힘들어. 농사짓는 것두 못 하겠구.” (보령 박공순 씨)

“석면폐 3급하고, 2급하고, 1급하고 나오는 수당이 달라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숨이 가쁜 증세가 있다고 말해도 별다른 치료가 없어요. 옛날부터 폐병은 잘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 수당은 치료비용이기 보다, 잘 먹으라고 나오는 돈 같아.” (예산 고평채 씨)

“폐가 늘려서 신경치료와 방사선 치료받고 먹고 쓰고 거기에 구십 넘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8년째 있어요.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령 신인철 씨)

“내 생각에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증상은 같아. 오히려 3급인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육안으로 볼 때. 등급에 차이를 두지 말아라 이 말이야. 석면이 폐에 침투가 되었으면 모두 고르게 줘라 이거야.” (홍성 이남억 씨)

석면폐의 경우 2급과 3급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구제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폐암과 석면폐1급의 구제기간은 5년) 석면폐질환으로 생업이 어렵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구제기간이 짧은 것이다. 또한 석면폐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 산업재해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구제수준이 낮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러자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이 필요하다.**

석면 건강영향조사지역 확대 및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

“이미 석면에 노출된 마을사람들과 이주해 떠난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청양 권혁호 씨)

“옛날부터 폐병은 비밀로 했어요. 나 아프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도 이장이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정도만 아픈 걸 알지, 주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예산 고평채 씨)

“(석면일을 하지 않았던) 광산의 광자 모르는 양반들도 석면폐1급이야. 광천 근방 가면 피해자가 많아.” (보령 박공순 씨)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으로 석면 광산과 공장, 수리조선소, 슬레이트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노출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충남의 경우 폐광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멀리서도 석면광산으로 일하러 다니거나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이사 왔다가

떠난 경우(특히 해당 지역의 읍 소재지)도 많아 **건강영향조사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폐석면광산 인근 지역은 한 번 조사를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조사를 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마을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부터 과거 석면공장 주변 거주민 조사, 명단 확정 석면환경보건센터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추적조사도 의미 있어 보인다.

폐석면광산 안전관리, 정기적인 환경조사 및 공개

“충남에 광산이 모두 25군데인데 광산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광산 사무실이 있던 자리예요. 원래는 이 밑에 살았지. 광산을 정부에서 사서 복구해주고 이주시켜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보령 신인철 씨)

주민의 안내로 찾아간 청양의 폐석면광산 자리는 안내판도 없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다. 광천읍 덕정마을의 폐석면광산 역시 전혀 관리된 흔적이 없고 주변에는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돌들이 보였다. **폐석면광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현황 파악,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폐광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주변 대기질, 토양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관리 및 조사 내용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폐석면광산 인근 거주 및 경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은 자연발생석면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토목사업이나 개발행위 시 석면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충남방적 처리방안 마련

“마을에 96세 된 어르신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죽 사신분인데 폐에 물이 찬다고 계속 병원 다니시다가, 검진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예산 고광채 씨)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에 위치한 (구)충남방적은 15만8602㎡(4만 8061평)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폐건물들이 20여 년째 방치돼 있다. 슬레이트 면적은 약 3만3330㎡로 1만 평 가까이 되며, 처리비용으로 20억~3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없이 지역공동화와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2019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충남방적 공장 일대 석면조사를 실시해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인터뷰에서 보듯 충남방적 근처에 거주한 것만으로 석면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많다. **석면 철거를 위한 자금 조성이나 조례 제정, 예산군의 부지 매입을 통한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적극 활용, 검진 및 치료 연계 강화

“석면폐 판정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 전부인데, 그 사이에 폐가 나빠져도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잖아요. 상, 하반기 정도만 되어도 좀 안심이 되겠는데... 우리 마을에서 석면폐증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두 분이 다른 병을 앓는 것도 없었는데 팔십 조금 넘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도 곧 팔십이에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잘못될 줄 알겠어요.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환자관리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예산 고광채 씨)

“(석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 자세하게 지켜보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청양 권혁호 씨)

현재 석면질환자는 1년에 한 번 무료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기검진 이외에 증상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악화되어 검진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다. **석면질환자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추가 1회(연간)에 한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올해부터 충남도는 홍성의료원에 위탁, 석면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피고

건강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등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 관리체계를 활용한 추가 검진 및 치료 연계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석면피해 기록활동 지원 및 석면피해기록관 설립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인터뷰하는) 선생님들처럼 수집할 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하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도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 충남에 특히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해서 사건들이 꽤 많잖아요. … 각 지역별로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놓고, … 산업 건설폐기물 그 자리에다가 그 석면 뭐야 그 박물관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제일 좋죠.” (청양 권혁호 씨)

“청소3리는 다른 마을보다 젊은 층이 많은 편이에요. 젊다고 해도 뭐 50대 이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여기에 죽 살잖아요. 앞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 고광채 씨)

‘자연발생석면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석면질환자가 가장 많은 충남에서 더 이상의 석면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석면피해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후세대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석면 피해의 역사를 알리고 교훈으로 삼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석면피해기록관은 1) 석면피해 역사에 대한 기록전시관인 동시에 2) 석면(피해)에 대한 교육공간, 3) 석면피해자 혹은 연구자, 관계자 등이 석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의 센난 석면기록관이 좋은 사례다. 센난지역은 100여 년 동안 석면방직산업이 존재해오던 곳인데 그곳의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센난에서는 일본정부의 안전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고 10년 후인 2015년 부분 승소했다. 센난에는 석면피해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석면기록관이 만들어졌고 전세계적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명소가 되었다. 충남의 석면피해도 지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역사로 남겨야 하고, 그러자면 더 늦기 전에 석면피해를 기록하고 사례를 모으며 석면피해기록관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행정-석면피해자-석면 관련 기관/단체 협의체 구성

“내 생각엔 한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돼. 대화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야.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 뭐든지 덩어리가 커야 힘이 되지. 석면피해 안 입은 사람하고도 얘기해봐야 돼. 그래야 폭이 넓어져. (홍성 이남익 씨)”

석면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면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석면피해와 구제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충남 다음으로 석면피해자가 많은 부산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부산광역시 석면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행정은 물론 석면피해자와 석면 관련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석면 이슈나 정책을 공유,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석면피해자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 모범적인 사례다. 행정-석면피해자-관련 기관/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석면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또 앞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석면피해기록의 의미와 인터뷰활동 평가]

국내외 최대 석면병 집단발병지역, 피해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다

2008년과 2009년 홍성과 보령 지역 석면피해자들과 솔하게 만나 석면피해구제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길거리 시위를 했었다. 그때 홍성 광천석면광산이 가동하던 때의 사진들을 처음 봤다. 깊은 구덩이 같았던 폐광지역을 메우고 정리해 그곳이 광산이었음을 알기 어렵게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광천광산 일대를 여러 번 다녔지만, 사진 속의 광산이 광천읍 상정리 일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경한 모습들이었다.

가파른 경사속에 사다리가 위태롭게 걸쳐있고 한국사람으로 보이는 광부들이 벼랑 끝 곳곳에 서 있는 모습들 사이로 일본군인 모자와 복장 신발 위 바지밑단에 각반을 두른 일본군의 모습이 일제시대의 사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홍성, 보령, 예산, 청양 일대의 주민들에게 감염병처럼 퍼져있던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이름들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초기 석면추방운동은 석면질환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석면피해특별법을 제정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때문에 마을 곳곳을 서둘러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아직도 주변 곳곳에 남아있는 석면들의 방치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해 세상에 알리는 일이 진행되었다. 덕분에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12년 동안 매달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신청되고 일부가 구제자로 인정된다.

진작에 시간을 내어 찬찬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어 기록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 그분들과 같이 광산이 있었던 자리, 석면광석을 운반하고 깨고 그랬던 곳곳을 다니면서 영상으로도 기록해두어야 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광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광석을 캐고 운반했는지 알기 어렵고, 안내를 받아도 어리둥절한 정도로 대부분 석면광산지역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광천기차역 마당에 산처럼 쌓인 석면더미 위에서 미끄러움을 타고 놀았다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고(故) 원범제 씨의 이야기를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석면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기록하는 일을 더 늦기 전에 꼭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했고 기록활동가들의 도움을

구했다. 그렇게 2022년도 더운 여름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합바, 광차, 크라샤, 사석, 도시, 신포, 간주, 옷계, 국반수, 살창, 굽, 세끼멘꼬, 지까다비, 미짱... 등 당시 석면광산 현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 인터뷰 곳곳에서 들려왔다. 석면광산이 일제에 의해 군수용품 조달목적으로 개발되었다더니 일본말이 절반이다.

홍성, 보령, 청양, 예산 지역의 석면피해자 기록은 일제침략의 기록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는 환경성 질환문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환경보건문제가 단순한 환경오염문제가 아니고 환경질환문제가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남지역 석면피해가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제대로 된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의학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몇차례 일본의 석면추방운동가들과 석면피해자들이 홍성과 보령을 방문해 석면피해자들과 교류했다. 고(故) 정지열 선생을 비롯해 홍성지역 석면피해자들과 부산지역의 석면피해자 및 한국시민사회에서도 일본의 오사카와 센난 그리고 구보타지역과 동경의 니치아스(일본석면)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저지른 석면광산 피해문제를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보듬고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지역 석면피해자 인터뷰기록집은 4개 지역에서 2~3명씩 11명의 피해자 목소리를 담았다. 이 지역 석면광산의 숫자보다도 적다. 이제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더 다양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산지역과 전국 곳곳의 석면피해가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최대 석면방직공장 밀집지역인 오사카 인근의 센난 한난 지역의 재일한국인들의 석면피해 기록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기록집의 발간을 계기로, 석면문제가 지역의 안 좋은 문제로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사라졌으면 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다. 잘 들어주고 보듬어 풀어 주어야 한다. 충남도와 네 곳 자치단체가 모여 충남지역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석면은 없어지지 않는다. 원래 있었던 곳인 땅속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제대로 알고 기억하지 않으면, 석면지역에서의 잘못된 토지이용과 개발과정에서 또 다시 석면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 석면문제의 특징이다.

글 :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

[석면피해기록의 의미와 인터뷰활동 평가]

절망의 가루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고맙습니다.

석면피해자 인터뷰기록집 발간에 함께해준 피해자, 그리고 기록활동가들 덕분에 소중한 기억을 읽었습니다. 용기 내어 나서주셔서, 생생하게 기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남지역은 석면산업에서 부산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석면광산업을 비롯한 석면산업이 활발했던 충남과 전국 최대 석면방직공장과 조선업, 수리조선업이 활발했던 부산의 석면산업은 힘든 시절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많은 석면피해자들이 창창한 나이에 당시로는 급여가 괜찮았던 석면공장에서 열정을 태우고 청춘을 누리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몇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흐려진 흑백 단체사진에서 옛 모습을 확인할 뿐입니다.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그리게 했던 그 곳은 어느새 절망을 주고 미래를 앗아가려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기록이 모여 절망을 덧칠하고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석면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피해자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석면피해자를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인터뷰기록집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

이와 같은 협의체가 생겨 민관이 함께 석면추방운동을 이어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많은 부산은 지역 곳곳에 석면공장 29곳, 슬레이트 밀집지역 11곳, 조선소 34곳이 있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 석면공장과 선박해체시설이 많았고, 한국전쟁 이후 무허가 슬레이트집이 많이 생겨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았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슬레이트 지역 주민의 석면질환 집단발병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로 언론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며, 매년 방학이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석면철거·교체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부산환경성피해자모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법무법인 민심, 전교조 부산지부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석면피해자 지원과 제도개선, 피해예방 그리고 석면추방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충남지역과도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며 석면추방에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글 : 노주형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추모시]

**무한천은 헤아릴 수 없는 한을 안고
-고 이기태 어르신을 추모하며**

고 이기태 어르신,
오서산 역새처럼 역세계 사셨지
강정리 마을회관 가로등 밑에서
양사리 아랫말 들판으로
밤새 싸락눈이 내리던 날
비봉 무한천 냇둑 갈대처럼
한 생애가 지상을 떠났다

한이 없어 무한천이라 했을까?
헤아릴 수 없어서 무한천인 거지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던 기침
119 구급차에 실려 부라부라
홍성병원으로 천안병원으로 옮겨 다니다
못다 뱉은 가쁜 숨으로 내려놓았는데

누군가는 억지 주장이라고
또 누군가는 운명이라고 말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석면가루 만큼 세상에는
아직도 검은 눈과 검은 손이 주고받는
검은 돈의 거래가 있어 마음 편히
공기를 내쉴 수 없는 땅

살얼음 밑에서 떼 지어 웅크리고 있는
피라미 구구리 동자개 운명 위로
석면가루 날리면 봄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래도 고사리 순은 세상 밖으로
돌아나와 여린 손을 내밀겠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배반의 땅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면
우리의 뼈아픈 고 이기태 어르신도
가물가물했던 생의 마지막 의식 더듬어
비봉땅 강정리랑 양사리 고향마을
휘이휘이 둘러보러 오시겠지

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가 있는
비봉면 강정리 마을회관에 '새 봄'이 와
숫대 세우고 풍장 치는 날 되면
그때 무한천 물을 가득 길어
양사리 아랫말 논에서 난 쌀로 빚은
비봉 막걸리 한 사발 올릴게요.

※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비봉면 양사리 이기태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신경섭 시인이 올린 추모시(청양신문 1081호, 2014년 12월 22일).

[함께 보면 좋을 자료]

충남지역 석면피해 인정 현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마을그림책 『하얀꽃』

[함께 보면 좋은 자료] 1.

충남지역 석면피해 인정 현황

2022년 9월 30일 기준

지역	구분	인정합계	비율	인정자						미만성 홍막비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전국	석면피해	5,367		666	989	3,708	305	1,308	2,095	4
	특별유족	1,047		666	326	55	23	14	18	-
	소계	6,414		1,332	1,315	3,763	328	1,322	2,113	4
충청남도	석면피해	2,057		39	207	1,808	132	598	1,078	3
	특별유족	144		45	74	25	4	8	13	-
	소계	2,201	100%	84	281	1,833	136	606	1,091	3
홍성군	석면피해	1,044		4	102	937	64	282	591	1
	특별유족	45		2	32	11	1	5	5	-
	소계	1,089	49.5%	6	134	948	65	287	596	1
보령시	석면피해	684		10	70	603	47	229	327	1
	특별유족	38		8	20	10	-	2	8	-
	소계	722	32.8%	18	90	613	47	231	335	1
천안시	석면피해	83		8	7	68	3	17	48	-
	특별유족	10		5	5	-	-	-	-	-
	소계	93	4.2%	13	12	68	3	17	48	-
예산군	석면피해	85		3	8	73	9	24	40	1
	특별유족	6		2	2	2	-	-	-	-
	소계	91	4.1%	5	10	75	11	24	40	1
청양군	석면피해	51		1	5	45	2	13	30	-
	특별유족	10		2	7	1	1	-	-	-
	소계	61	2.8%	3	12	46	3	13	30	-
아산시	석면피해	23		1	4	18	2	10	6	-
	특별유족	5		2	3	-	-	-	-	-
	소계	28	1.3%	3	7	18	2	10	6	-

지역	구분	인정합계	비율	악성 중피종	폐암	인정자				미만성 홍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서산시	석면피해	21		4	3	14	2	5	7	-
	특별유족	5		3	1	1	-	1	-	-
	소계	26	1.2%	7	4	15	2	6	7	-
금산군	석면피해	17		1	1	15	-	4	11	-
	특별유족	3		3	-	-	-	-	-	-
	소계	20	0.9%	4	1	15	-	4	11	-
당진시	석면피해	16		2	1	13	1	5	7	-
	특별유족	3		3	-	-	-	-	-	-
	소계	19	0.9%	5	1	13	1	5	7	-
공주시	석면피해	8		-	2	6	-	1	5	-
	특별유족	5		5	-	-	-	-	-	-
	소계	13	0.6%	5	2	6	-	1	5	-
태안군	석면피해	8		1	1	6	-	4	2	-
	특별유족	2		1	1	-	-	-	-	-
	소계	10	0.5%	2	2	6	-	4	2	-
서천군	석면피해	8		1	2	5	1	2	2	-
	특별유족	2		2	-	-	-	-	-	-
	소계	10	0.5%	3	2	5	1	2	2	-
논산시	석면피해	2		1	1	-	-	-	-	-
	특별유족	7		4	3	-	-	-	-	-
	소계	9	0.4%	5	4	-	-	-	-	-
부여군	석면피해	5		-	-	5	1	2	2	-
	특별유족	2		2	-	-	-	-	-	-
	소계	7	0.3%	2	-	5	1	2	2	-
계룡시	석면피해	2		2	-	-	-	-	-	-
	특별유족	1		1	-	-	-	-	-	-
	소계	3	0.1%	3	-	-	-	-	-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2.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충남지역 석면피해 실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행한 보고서. 2021년 9월 30일 충청도청에서 <충남지역 석면피해실태 조사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충남지역 석면피해, 특히 석면피해자가 많은 홍성과 보령, 청양, 예산 4개 지역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보고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http://eco-health.org/>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2021년-30호 9월 30일 충청남도 석면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0호, 2021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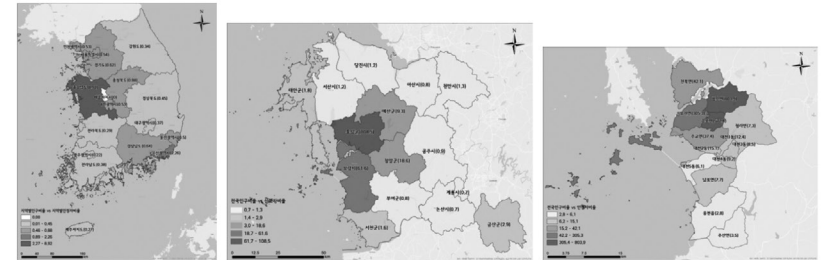
충청남도 석면피해 실태조사

광역 시도중에선 **충청남도**, 기초 시군중에선 **홍성군**, 읍면중에선 보령시 **청소면**이 인구비례로 전국에서 가장 석면피해인정자 많아

2011년부터 10년 7개월 진행된 석면피해구제법 피해인정자 5,295명 분석
충청남도 석면피해구제인정자 1,943명으로 인구수에 비해 8.7배 많아
석면폐암 6.4배 많고, 석면폐는 1,606명으로 11.9배나 많아

충남은 세계적인 석면폐 집단발병 핫스팟(hot spot)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서 충남 4개시군이 가장 많아,
홍성군 957명으로 인구비례 91.2배, 보령시 642명으로 63.4배
전국 3,509개 읍면동 중에선
보령시 청소면 256명 977.3배, 홍성군 결성면 222명으로 953.9배



<그림, 전국 최다 석면피해자 발생지역인 충청남도, 홍성군, 청소면의 지리정보시스템 GIS 표기>

충남에서 석면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석면광산이 몰려있어 직업력있는 주민들에게 석면질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폐광후 안전관리 않은채 방치해 주민들이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됐기 때문.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조사와 전문클리닉 및 석면피해기록관 설립 필요,
전체의 54%인 석면폐 2,3급 구제급여 제한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 서산태안, 예산홍성, 천안아산)

[함께 보면 좋은 자료] 3.

마을그림책

<하얀꽃>



홍성군 주최,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주관으로 김보리 작가가 쓰고 그린 마을그림책(2022). 석면광산이 있던 광천읍 덕정마을의 석면노동자와 석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얀꽃』으로 담았다.





퍼낸날 2022. 10.20

퍼낸곳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글쓴이 석면피해기록단 (김보리 · 홍순영 · 김형수 · 신은미)

디자인 사과나무